



본 『南北對話 年表』는 南北會談 및 기타 南北關係와 有關한 對內 主要動向 · 北韓 主要動向 · 周邊動向 등을 綜合 整理한 것으로서 統一 · 對話업무의 基礎資料로 活用하기 위하여 作成된 것입니다.

# 남북대화연표(94-II)

〈1994. 4. 1~6. 30〉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 目 次

4月 .....	1
5月 .....	38
6月 .....	72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	<p>0 외무부 대변인, UN 안보리 議長聲明 채택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를 충분히 인식해 이번 의장성명서에 즉각 呼應해 올 것을 촉구함.</li> <li>- 정부는 앞으로 핵무기 비확산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北韓核問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함.</li> </ul> <p>0 韓·美 외무장관, T/S훈련 재개여부 4월말 결정키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가 IAEA추가사찰 시한으로 요구한 4월말까지 T/S훈련의 재개결정을 연기키로 합의</li> </ul> <p>0 韓·日 정상, 북한 핵문제 전화협의</p>	<p>0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北核多者협상 제의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가 제재와 압력을 반대하고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방도를 모색하려는데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li> <li>- 러시아의 다무적 협상제안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우려됨</li> <li>-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우선 우리와 美國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정치군사적 문제임.</li> </ul> <p>0 UN주재 북한대사 박길연, UN 안보리 의장성명 거부 표명 * 교도통신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리 의장성명의 추가사찰 요구는 일방적인 요구로서 이행할 수 없음.</li> <li>- 미국과 협상은 미국이 3단계 고위급회담을 향한 토대를 마련하면 반대하지 않겠음.</li> </ul> <p>0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대변인 李基澤 민주당 대표 訪北문제 관련 談話</p>	<p>0 페리 美 국방장관, UN안보리 의장성명 미흡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수단이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최종적인 해결은 아직 요원함.</li> </ul>

■ 4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		0 전당 당세포비서대회 폐막 (3.31~4.2)	0 워싱턴 포스트紙, 北 제2 재처리라인 완공뎀 플루토늄 생산능력 배증 보도  - 북한은 寧邊에 기존 재처리라인에 이어 제2 재처리라인을 건설중이며, 6개월내 완공되면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2배로 늘어날 것임.
4. 3	0 韓·日 외무장관, 北核 협조방안 논의 (도쿄)  - 4월말까지 대화를 통한 노력을 계속하되 北韓이 끝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  - 中國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  0 洪淳瑛 외무부차관, 특사 교환 전제 철회검토 주장  - 아직은 남북 특사교환이 美·北韓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아있으나		0 페리 美 국방장관, 북한 핵무기 2개 보유 판단 발언 * 美 NBC방송 회견  - 美정부는 북한이 이미 2개의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면 우선 목표는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중단시키는데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3	<p>그 연계고리를 끊는 방안을 포함해 광범위한 논의가 가능하며 논의돼야 한다고 봄.</p>		
4. 4	<p>○ 韓昇洲 외무부장관, 호소카와 日총리와 北核문제 논의 (도쿄)</p>	<p>○ 외교부 대변인, UN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는 우리 핵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의장성명에 담보협정 이행문제를 꺼들임으로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편승하였음.</li> <li>- 우리가 朝·美회담을 위하여 NPT탈퇴 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순간부터 담보협정의 효력은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li> <li>- 따라서 담보협정이행이요, 추가사찰이요 하는 것은 공인된 특수지위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도 되지 않음.</li> <li>- 미국이 우리와 한 모든 공약을 뒤집어엮고 압력일변도로 나오는 현상황에서 우리는 朝美회담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동결시키고 있던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정상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li> <li>- 힘에는 힘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li> </ul>	<p>○ 갈리 UN사무총장, 北核 평화적 해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 대화, 북한·미국 대화, 북한·IAEA 대화 등 3개 채널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현 상황에서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 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p>○ 사우드 차이나 모닝 포스트紙, 북한 국경탈출자 사살명령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4		<p>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정책임.</p> <p>0 천도교청우당 대변인, 李基澤 민주당 대표 訪北문제 관련 談話</p> <p>0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1돌기념 중앙보고회 * 참석자: 박성철, 양형섭, 김용순 장 철, 유미영, 강현수</p>	
4. 5	<p>0 金泳三 대통령, 주변 4強 北核결정 사전협의 발언 * 식목행사</p> <p>- 북한核문제와 관련, 美·日·中·러 등 한반도 4 개 주요국가들은 한국과의 협의없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임.</p> <p>0 국무총리 주재 안보장관회의 * 외무부장관의 귀국보고 및 북한 核협상관련 대책 논의</p>	<p>0 『祖平統』대변인, 한반도정세 관련 비난 聲明</p> <p>- 미국과 남조선의 침략무력증 강책동과 전쟁도발책동을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 우리민족을 새로운 核전쟁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범죄행위로 낙인하면서 강력히 규탄함.</p> <p>- 미국이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핵전쟁연습을 감행하려하는 것은 朝·美공동성명을 일방적으로 꺾버리고 문제를 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임.</p> <p>- 남조선의 책동은 사대매국역적들만이 할수 있는 반민족적 행위이며 北南 비핵화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지장으로 만드는 배신행위임.</p>	<p>0 델라스키 美국방부 대변인, T/S훈련이 미뤄질 경우 다른 훈련 검토 발언</p> <p>- T/S훈련 실시를 기정사실로 알고 있으나 실시여부와 시기는 韓國정부와 현재 협의중이며, 미뤄질 경우 다른 종류의 훈련을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중임.</p> <p>0 타임誌, 美정부 北核보유 목인방침 보도</p> <p>- 美행정부는 북한이 핵폭탄을 추가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核査察을 받</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5		-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올바르게 찾자면 美國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변경시킬 뿐 아니라 남조선에서 김○○과 같은 사대매국노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제거하고 민족자주세력, 민주통일세력이 정권을 차지해야 함.	는 조건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2개의 핵폭탄에 대해서는 묵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4. 6	0 金泳三 대통령, 北韓 별목공 망명 不許 방침 * 경제계인사 오찬  - 중국측에 우리가 흡수통일을 원치 않으며 北韓 별목장의 인부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데려오지 않고 있음을 설명했음.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	0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 개최 (4.6~4.8)  * 주석단 명단 :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강성산, 김영남, 최 광  < 의 제 > 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 과업 성과적 수행문제 ② '93예산집행결산과 '94 예산 심의 ③ 휴회기간 상설회의 채택 법안 승인  < 회의 결과 >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 과업 성과적 수행문제에 대한 결정』 채택  ①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관철 ② 석탄공업·전력공업·철도	0 팻 뷰캐넌, 한국 핵무장 허용 주장 * 워싱턴 포스트紙 기고문  - 한국·일본·대만·호주 등이 소규모의 핵무기를 보유, 東아시아에 이웃해 있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수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6		<p>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 계속 발전</p> <p>③ 경제조직사업 및 경제관리의 원만한 수행</p> <p>④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자력갱생의 기풍발양</p> <p>⑤ 국가 및 경제기관 간부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p> <p>⑥ 본 결정의 구체적 집행대책 을 정무원에 위임</p> <p>- 『 '93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결정』과 『 '94 예산에 대한 법령』 채택</p> <p>* '93 지출 402억4천만원 '94 예산 415억2천만원 (美貨 188억7천불, 전년대비 3.2%증액)</p> <p>- 『 문화유물보호법』· 『 변호사 법』 채택 및 『 합영법』 개정 승인</p> <p>○ 『 祖平統』 서기국, 학생시위 관련 對南비난 보도</p>	
4. 7	<p>○ 金泳三 대통령, 『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 구성 지시</p> <p>* 안보장관회의</p> <p>- 北核 대책 및 안보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총 리 중심의 『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 구성 지시</p>	<p>○ 조선불교도연맹, ' 민족대단결 10대강령' 관련 해외동포 및 남한불교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p> <p>* 중앙위 확대전원회의 개최</p>	<p>○ 클린턴 美 대통령, 北核 관련 『 고위정 책조정팀』 구성지시</p> <p>- 북한핵 관련 관계 부처간 입장을 협 의·조정해 나갈 ' 고위정책조정팀' 구성을 지시하고</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7			<p>갈루치 국무차관보를 그 의장 겸 북한 核전담대사로 임명</p> <p>0 페리 美 국방장관, 북한 핵개발·남침 기도엔 UN다국적군 활용 시사</p> <p>* 브루킹스연구소 발간 논문</p> <p>- 핵무기확산 기도국이나 침략국에 대해 UN이 결정한 다국적 협력군을 통해 그같은 기도를 저지시킬 수 있을 것임.</p> <p>-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경우 對북한 예방폭격도 불가피함.</p> <p>0 吳建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 金日成생일에 대표단 파견 발언</p> <p>- 중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金日成 북한주석 생일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임.</p>

■ 4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8	<p>0 統一安保政策調整會議 첫 모임 개최</p> <p>- 회의운영방안과 UN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국내외정세 변화 논의</p>	<p>0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 폐막</p> <p>0 金正日 국방위원장 추대 1돌 경축 중앙보고회 개최 (2.8 문화회관)</p> <p>* 참석: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최 광, 계응태</p>	<p>0 파노프 러 외무차관 시베리아 별목장 北韓 노동자 망명허용 발언</p> <p>- 탈출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한국으로 가도록 하겠음. 외교상으로 아무 문제도 없음.</p> <p>- 러시아는 舊소련의 승계자로서 북한과의 조약을 이어받았으므로 북한과 러시아간의 조약은 아직도 유효함.</p> <p>- 북한을 지원하는 경우는 북한이 제3자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를 러시아헌법과 국내법, UN헌장 및 NPT 등 국제규범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임.</p>
4. 9		<p>0 임업부 대변인, 시베리아 별목장 北韓 노동자 인권문제 관련談話</p> <p>-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을 모독하면서 조</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9		<p>사단 파견이니 귀순공작이니 하고 소동을 벌이는 것은 남북대결을 해외에까지 확대하여 민족적 반목을 조성하고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일심단결의 위력을 훼손시켜 보려는 계획적인 민족반역행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어떤 조사단을 파견하는 놀음을 벌이거나 그들에 대한 당치않은 귀순공작따위의 놀음을 벌인다면 그에 단호히 대처할것임</li> <li>-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적인 모략책동에 그어떤 나라나 국제기구가 가담하는데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임</li> <li>- 앞으로 우리 벌목노동자 몇몇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납치해간 것으로 인정하고 즉시 그에 상응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li> </ul> <p>0 平放, 李仁模가 방북1돌 즈음 남한의 도와준 인사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고 보도 * 3.13字 김상원·임수경등 6명</p>	
4. 10		<p>0 『祖平統』서기국, 남한 핵무기개발 규탄 報道 발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1	<p>0 金泳三 대통령, 북한에 쌀 등 경제지원 준비 언급</p> <p>* 吳學謙 중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접견</p> <p>- 북한이 국제적 고립감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과 진지한 對話를 할 경우 고립감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p> <p>- 그 경우 한국은 美·北韓 간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해줄 준비가 돼 있음. 韓國은 북한에 줄 수 있는 충분한 쌀이 있음.</p>	<p>0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民族大會』 소집 제의 (인민문화궁전)</p> <p>* 참석자: 강성산, 김병식, 양형섭, 김용순, 장 철, 유미영, 주성일, 최용해, 최성숙, 정두환, 백인준, 백남준</p> <p>&lt;최고인민회의議長 양형섭 보고&gt;</p> <p>- 우리는 조국광복 50돌을 한해 앞둔 오는 8.15를 계기로 평양이나 서울에서 전민족의 대단결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민족대회'를 소집할 것을 남조선당국과 각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정중히 제의함.</p> <p>- '민족대회'는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단체 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하는 圓卓會議로 할 수 있을 것임.</p> <p>- 대회에서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과 '90년대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되는 민족공동의 과제들을 비롯하여 온민족이 관심하는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임.</p>	<p>0 美의회조사국(CRS), 韓·美 양국과 북한의 예상되는 군사적 선택방안 검토 보고서 발표</p> <p>* 『한반도의 위기: 1994 -군사지리, 군사균형, 군사옵션』</p> <p>- 北韓 군사선택방안</p> <p>① 군사적위협 극소화</p> <p>② 한국 불안조성</p> <p>③ 대남침투</p> <p>④ 국제테러리즘 격화</p> <p>⑤ 재래전과 비재래전 감행</p> <p>⑥ 핵무기 사용</p> <p>- 韓·美군사선택방안</p> <p>① 미군철수</p> <p>② 군사적 현상유지</p> <p>③ 전쟁억제력 강화</p> <p>④ 전진배치 방위</p> <p>⑤ 북한 봉쇄</p> <p>⑥ 북한핵시설 파괴</p> <p>⑦ 선제공격</p> <p>⑧ 핵무기 배치</p> <p>0 美 케미컬 &amp; 엔지니어링 뉴스紙, 北韓 플루토늄 최고 10kg</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소 집하기 위하여 北과 南, 海外 에서 각각 5명의 대표들로 '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5월중 순경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가지는 것이 좋겠 다고 생각함.</li> <li>&lt;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 들에게 보내는 편지·채택 &gt;</li> <li>* 4.13 平放 공개</li> <li>- 전민족의 대단결이야말로 오 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며 조국통일의 길 을 열어 나갈수 있는 출로로 됨.</li> <li>-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 속히 실현하려는 염원으로부터 조국광복 50돌을 한해 앞 둔 오는 8.15를 계기로 평양 또는 서울에서 民族大會를 소 집할 것을 제의하는 바임.</li> <li>- 민족대회에는 北과 南의 당국 과 정당, 단체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海外同胞대표들이 정견과 신앙, 소속과 직위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 을 가지고 참가할수 있을것임</li> <li>- 민족대회에서는 전민족대단결</li> </ul>	<p>보유 추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드 IAEA 대변인 발언 인용</li> <li>- IAEA는 최근 영변 핵사찰시 북한이 제공한 핵물질을 분석한 결과, 앞서 신고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플 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에 도달했음.</li> <li>- 북한이 최고 10kg 까지 확보하고 있 을지 모른다는 게 IAEA의 판단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1		<p>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비롯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p> <p>- 北과 南, 海外에서 각각 5명씩 대표들을 내어 민족대회 準備委員會를 구성, 오늘 5월에 평양 또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민족대회 소집날짜와 장소, 회의방식을 확정하며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p> <p>0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민족대회』 소집 제의 便紙 전달 관련 對南電通文</p> <p>-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단체·개별적 인사들에게 보내는 便紙를 넘겨주기 위하여 '94.4.13(수) 오전 10시 板門店 중감위원회의실에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임.</p> <p>0 외교부, 日本 핵무장 폭로 백서 발표</p>	
4.12	<p>0 남북연락사무소 李俊求 소장, 북한측 편지접수 거부 對北電通文</p> <p>- 귀측이 우리측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편지는 정상</p>	<p>0 北韓, 남한이 '서울불바다' 발언 왜곡 주장</p> <p>*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참가자(최성익, 이금철) 平放 대담</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2	<p>적인 남북대화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현재 남북 현안문제인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政府의 판단에 따라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바임.</p> <p>○ 統一院 대변인, 북한측의 『8.15 민족대회』제의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석상에서 까지 '서울 불바다'를 운위하던 북한이 과연 민족적 화해를 말하고 민족대단결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li> <li>-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얽매여 이미 실패로 끝난바 있는 汎民族大會의 재판을 벌임으로써 또다른 형태의 統一戰線戰術을 기도하려는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함.</li> <li>-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만 조장하는 政治宣傳行爲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함</li> </ul>	<p>IAEA의 재사찰을 받지 않으면 北南 특사교환문제를 협의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한 것은 특사교환 자체를 포기하려는 의도를 다시금 공언한 것으로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특사교환을 파탄시키려는데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남특사교환을 제3단계 朝·美회담의 制動物로 이용하려는데 있음.</li> <li>- 남조선이 우리에게 먼저 전쟁선언을 해놓고 전쟁의 길로 나가는 저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 보려고 '불바다說'을 왜곡·유포시키면서 지금 모략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li> </ul> <p>○ 전직 국가·정부수반·정치인 『平壤방문단』 도착</p> <p>*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초청, 윌리엄 테일러 등 美 연구단체·언론계 인사 포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속히 IAEA 추가사찰을 받아들이고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li>0 韓昇洲 외무부장관, 블릭스 IAEA사무총장에게 對北 접촉 재개 요청</li> <li>- 안보리 의장성명(3.31)과 관련, IAEA측이 먼저 북한에 追加査察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안</li> <li>- 북한이 다음달초까지 계속 사찰을 거부할 경우 IAEA측이 북한의 의무불이행에 관해 安保理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li> </ul>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金泳三 대통령, 북한 별목공 대책 다각적 검토 지시</li> <li>* 朱燉植 청와대 대변인 발표</li> <li>- 金泳三 대통령은 4.13 정 부관계부처에게 러시아내 작업장에서 탈출한 북한 별목공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지시했음.</li> <li>- 이에 앞서 4.12 러시아로 떠난 韓昇洲 외무부장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金日成, 美·北 회담 통한 핵문제 해결 강조</li> <li>* 쿠바 프렌사 라티나 통신 會見 (5.20字 中放)</li> <li>-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美國의 對조선 적대시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만큼 우리와 미국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li> <li>- 美國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압력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는 응당한 자위적 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核사찰 4월말까지 완료 희망</li> <li>-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IAEA는 UN안보리에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li> <li>- 이달말까지 방사화학실험실의 5MW급</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3	<p>에게도 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p> <p>- 金 대통령은 그간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고 IAEA 핵사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문제를 일시 유보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北韓이 이에 부응하는 자세를 거부하고 있어 人道主義的인 原則에 입각한 검토를 지시한 것임</p>	<p>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p> <p>- 외국 투자자들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게 되면 지역적 경제협조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 다른 나라 투자자들에게 언제나 投資의 문을 열어놓고있음</p> <p>- 南朝鮮 당국자들이 우리의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호응하여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오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외세 의존과 北南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p> <p>- 聯邦制 통일방안은 조선의 北과 南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공정하게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정당하고 현실성있는 통일방안임.</p> <p>0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對美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희망</p> <p>* 통일정책위 일꾼들과 세계 각국 전직 국가·정부수반, 정치인들 사이의 회담 (인민문화궁전)</p>	<p>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끝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p>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 연료봉고체 단독 강행맨 심각 상황 발생 경고</p> <p>* ABC-TV 회견</p> <p>- 북한이 몇달안에 영변 원자로의 핵 연료를 교체할 전망이다.</p> <p>- UN이 통제하지 않는 가운데 작업이 강행될 경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p> <p>0 吳學謙 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北核 중국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발언</p> <p>- 우리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할 것이지만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에게 經濟封鎖라는 말은 통하지 않으며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이 마련되어 있음.</li> <li>-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며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고 계시는 金正日 동지를 '친어버이'로 절대 숭배하며 충성을 다하고 있음.</li> <li>-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우선 조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군축이 실현되어야 하고 朝·美사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함.</li> <li>- 앞으로도 인내성을 가지고 美國과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원하지만 미국이 끝내 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음.</li> </ul>	
4.14	<p>○ 韓·러 외무장관, 북한 별 목공 송환문제 협의 (모스크바)</p> <p>- 韓昇洲 외무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탈주자들이 북한에 송환되지 않고 러시아 국내법의 보호하에 둘 것과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韓國 이주를 원할 경우 협조해 줄 것</p>	<p>○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美·北회담 계속 주장</p> <p>* 통일정책위 일꾼들과 세계 각국 전직 국가·정부수반, 정치인들 사이의 座談會</p> <p>- 朝·美회담은 계속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하여 핵문제, 朝·美관계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p>	<p>○ 갈루치 美國무부 차관보, 對北경제제재 중국과 포괄 협의 발언</p> <p>- 북한이 IAEA 추가 사찰 수용·남북대화 재개 등 2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미·북한 3단계 회담은 열리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4	<p>을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지레프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하는 나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美國도 신의와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임.</li> <li>○ 駐러 북한대사 손성필, NPT 脱退 위협 * 모스크바방송</li> <li>- 미국이 이전 합의에서 물러서면서 강경압력이라는 대책을 내리먹이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해당한 대책을 취해야 할 때임.</li> <li>- 지난해 3.12 선포한 NPT 脱退 선언을 다시 본격화할 수도 있음.</li> <li>- (러시아 '8者회담' 제의관련) 회의 참가국들중 다수는 미국의 편에 들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 참가한다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임.</li> <li>○ 金日成 생일경축 중앙보고대회 * 참석자: 오진우,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이인모</li> </ul>	<p>않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까지 북한이 핵사찰과 남북대화등 2.25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UN안보리에서는 經濟制裁등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에 관해서도 中國측과 포괄적인 논의를 했음.</li> <li>○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寧邊에 추가 핵시설 건설 확인</li> <li>- 북한이 寧邊핵시설 단지 안에 또하나의 핵재처리시설을 건설중임.</li> <li>- 이 시설이 언제 완공될지는 알 수 없으나 완공되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은 배가될 것임.</li> </ul>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특사교환 철회 및 북한 벌목공 망명허용 방침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黨민방위부장 김익현에게 『次帥』칭호 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지레프 러 외무차관, 북한과의 벌목협정에 『人權條項』 삽입 방침</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5	<p>〈 발표문 요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교환은 정상간의 간접대화로서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태도는 특사교환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음.</li> <li>- 특사교환을 통해서도 핵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음.</li> <li>-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한 상호사찰 실시를 위한 남북대화가 진행되어야 함</li> <li>- 남북상호사찰 없이는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북한의 핵 투명성 보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li> <li>- 정부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탈출자 본인이 망명을 희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희망자 전원을 국내에 데려오기로 방침을 결정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 각국 고위대표단 및 해외동포 대표단을 위해 연회 (금수산의사당)</li> <li>○ 『韓民戰』중앙위, 김일성에 생일 축하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는 현재 협상중인 시베리아 벌목에 관한 북한과의 협정에 러시아 영토내에 있는 북한벌목공들의 인권보호문제를 철저히 반영할 것임.</li> <li>○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北 추가사찰 받아야 3단계 회담 개최 발언</li> <li>- 남북한 특사교환 조건이 철회되었다 해도 북한이 추가 핵사찰을 받지 않는 한 美·北韓 3단계 고위급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들 탈출자의 망명 희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li> <li>○ 政府, 북한 벌목공 관련 『정부지원대책반』 구성</li> <li>* 외무차관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li> </ul>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泳三 대통령, 北核 저지 국제공조 강조</li> <li>* 부시 前 美대통령 면담</li> <li>- 북한은 언제든지 핵을 가지려고 노력함.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강력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밀한 국제협조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해야 함.</li> <li>-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安保理에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li> <li>- 북한 벌목공들의 亡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인권적·민족적 입장에서 취해진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 북한 핵개발의혹 부인</li> <li>* 美CNN방송 회견</li> <li>- 우리는 강대국이 되려고도 하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을 것임</li> <li>- ‘서울불바다’ 발언은 적절치 못한 것이었음.</li> <li>-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있지 않은 핵무기를 내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음. 핵무기를 보유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li> <li>- 핵무기를 먼거리를 향해 쏠 수 있는 운반수단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국토가 좁아 핵무기 실험을 실시할 수도 없음.</li> <li>- 북한이 어떤 전쟁의사도 갖고 있지 않음. 여기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음.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커다란 피해를 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브라이트 유엔주재 美대사, 북한을 『不良국가』로 간주 발언</li> <li>○ 마린 보쉬 핵실험금지위원회 위원장, NPT 재검토 주장 (런던)</li> <li>- 핵강국들의 핵보유권만을 보호해주는 NPT는 재검토돼야 함.</li> <li>- NPT는 이미 와해되고 있으며 이 조약은 자국의 핵무기를 증강하고 성능을 개선해서 핵독점을 유지하려는 핵보유국들에 의해 수년동안 불모가 되어왔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6	<p>0 政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에 탈출 북한 별목공에 대한 國際法상 난민지위 부여 요청</p>	<p>을 것이며 따라서 전쟁을 원하는 자들은 제정신이 아님.</p> <p>- 사냥과 낚시 그리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싶음.</p> <p>0 金日成, 각국 예술인의 연환공연 관람 (만수대의사당)</p>	
4.18	<p>0 金泳三 대통령, 韓·美 안보결속앞에 北韓도발 없을 것이라고 강조</p> <p>* 태평양지역관광협회 (PATA) 개막식 치사</p> <p>- 북한은 확고한 韓·美 안보결속 앞에서 어떠한 도발도 획책하지 못할 것임</p> <p>-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돌출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은 자신감과 활기로 넘치고 있음.</p> <p>- 북한은 UN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장성명을 비롯한 세계 여론을 거역하지 못할 것임.</p> <p>0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와 북한 핵문제 논의</p>	<p>0 金日成, 美·北협상 무조건 재개 촉구</p> <p>* 日NHK방송 회견(4.18字 보도)</p> <p>- 미국은 핵무기가 있었던 적도 없고 국제기관의 사찰까지 받은 우리에게 부당한 트집을 잡아 압력을 가하고 있음.</p> <p>- 남조선에 핵을 반입해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미국이고 있지도 않은 핵개발의혹을 초래한 것도 미국임.</p> <p>-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협상으로만 해결이 가능함. 양국이 서로 합의성명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 이행해나간다면 핵문제는 부드럽게 풀릴 것임</p> <p>- 양국간 관계개선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日本이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를 버려야 함 일본이 對북한 정책을 실질적</p>	<p>0 패트리엇 미사일 부산 도착</p> <p>- 패트리엇미사일 1차선적분 3개포대 00기가 부산항에 도착</p> <p>0 에드워드 워너 美 국방차관보, 한국에 重武器 사전배치 계획 언급</p> <p>* 美상원 군사위 소위원회 증언</p> <p>- 미국은 잠재적 분쟁가능지역인 韓國과 쿠웨이트에 여단급 중무기장비들을 미리 배치할 계획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8	<p style="text-align: center;">&lt; 합의사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핵활동의 투명성보장을 위해서는 IAEA사찰과 南北상호사찰의 2개 軸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li> <li>- 북한이 IAEA 추가사찰을 조속히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南北상호사찰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li> <li>- 美·北 3단계회담과 남북 대화는 긴밀한 연계를 갖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li> </ul> <p>○ 韓·美 北核관련 고위실무회의, 추가사찰 수용해야 3단계회담 개최 합의</p> <p>* 金三勳 核담당대사,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참석</p> <p style="text-align: center;">&lt; 합의사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美·北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에서 남북특사교환을 빠기로 한 한국정부의 결정 존중</li> <li>- IAEA 추가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 3단계 美·北회담 개최</li> </ul>	<p>으로 전환해야만 관계개선의 전망이 열릴 것임.</p> <p>※ 前 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 발언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을 철수했음을 담보하지 않고 있음. 남조선에는 핵무기로 사용할 수단이 그대로 남아있음.</li> <li>- 일본의 요코스카항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있으며 50~100발의 핵폭탄이 실려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임.</li> </ul>	

■ 4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S 훈련의 중단여부는 북한 핵문제의 진전상황과 연계</li> <li>- 남북대화와 美·北회담은 상호 보완적 형태로 추진</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북한 벌목공 難民지정절차 생략 방침</li> <li>* 러시아방문 귀국회견</li> <li>- 귀순의사와 신분이 확실할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의 난민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만으로 한국으로 바로 데려오기로 했음.</li> <li>-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북한 벌목공에 대한 한국의 동포애를 이해하며, 귀순은 벌목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음.</li> </ul>		
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이성호,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 송환 요구 對南電通文</li> <li>- 우리는 명백히 전쟁포로들인 김인서·함세환의 송환문제가 그 어떤 이유나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조선정전협정과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의 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윌리엄 테일러 美 CSIS 부소장, 訪北 관련 회견</li> <li>- 金주석이 미국이 공식초청할 경우 지금이라도 방문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9		<p>구에 따라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환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을 가시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을 것임.</li> <li>- 귀 적십자사가 전쟁포로들인 김인서·함세환을 즉시 송환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지체없이 긍정적인 호응을 보일 것을 다시금 촉구함.</li> </ul> <p>0 金日成, 경수로 지원 조건 核재처리시설 포기 용의 시사 * 워싱턴 타임스紙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경수로 원자로를 제공할 경우 美國이 걱정하고있는 원자로나 방사화학실험설비등 再處理施設은 아마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임.</li> <li>- 核무기를 만들 필요도, 의향도 능력도 없으며, 미국에 대해 핵카드를 써오지도 않았음.</li> <li>- 패트리엇미사일 배치문제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전쟁무기이므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용순 등 북한의 고위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이 진다고 인정하고 北韓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음.</li> <li>- 북한은 IAEA 추가 사찰은 받아들여되 영변 未申告施設 2곳은 IAEA사찰과 분리시켜 미국과의 협상에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음.</li> <li>- 늦어도 4월내에 美·北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확신함.</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9		<p>0 조선반핵평화위원회,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비난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朝·美 공동성명과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배신행위이며, 군사적 도발행위임.</li> <li>-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미제와 괴뢰도당의 패트리엇 미사일 반입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하여 反美·反戰·反核·反政府 鬪爭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것임.</li> </ul>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갈루치 미국무차관보에 서한 * 日니혼게이지신문 (4.22字)</p>	
4.20	<p>0 韓·美 국방장관, 북한이 『2.25 美·北합의사항』 불이행시 T/S훈련 11월 실시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lt; 합의사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지난 2월 합의사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94 T/S훈련을 11월경에 실시</li> <li>- 美·北 3단계회담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li> </ul>	<p>0 『汎民聯』 북측본부 의장 백인준, 문익환 목사 백일추모제 대표단 파견 관련 對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문목사 장례위원회의 초청에 호응하여 북측대표단을 서울에 보내기로 하였음.</li> <li>- 우리 대표단으로는 나를 포함하여 4명의 성원들로 하고 여기에 약간명의 수원, 기자들을 동행시키려고 함.</li> <li>- 귀측이 서울에 나가는 우리</li> </ul>	<p>0 IAEA 대변인, 북한이 추가사찰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당국이 자국의 일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라는 UN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보내왔음.</li> <li>- IAEA는 앞으로 며칠내에 그 문제를</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0	<p>될 경우 '94 T/S훈련 중단을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美연합방위체제의 공고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對北억제력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 발전</li> <li>-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전투력 현대화와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li> </ul>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 대화로 안풀리면 UN제재 불가 피 발언 * 페리 美국방장관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IAEA의 충분한 사찰을 받지않는등 대화노력에 성과가 없으면 UN제재라는 최후의 카드를 가질 수밖에 없음.</li> </ul>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남북 대화는 北核해결의 장기적 전제조건이라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대화는 3단계 北·美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북한핵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li> </ul>	<p>대표단의 身邊安全과 편의를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대표단이 서울에 나가는 것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4.22 (金) 오전 10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쌍방 實務者들의 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 문익환 목사 장례위원회 앞으로 電通文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故 문익환 목사 겨레장 장례위원회가 북측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民族大團結을 도모하는데서 좋은 일로 된다고 생각함.</li> <li>- 4.26 (火) 아침 8시 나를 포함한 4명의 대표들과 수원, 기자들이 판문점을 통하여 추모행사에 참가하며 28일 오후에 서울을 출발하여 귀로에 오를 예정임을 알려드림.</li> </ul> <p>0 북한, IAEA에 원자로 연료봉 교체 입회요청 電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寧邊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 시 IAEA가 입회해 줄 것을 요청</li> </ul>	<p>논의할 계획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0	<p>는 반드시 거쳐야할 전제 조건임.</p> <p>0 統一院, 부산항·청진항간 선박 운항 승인</p> <p>- 삼선해운(주)에 대해 St. Vincent 국적선 Halibut 호의 부산항↔청진항간 부정기 왕복 1회 운항을 승인</p> <p>* '94. 4. 20 부산항→청진항 '94. 4. 25 청진항→부산항</p> <p>0 李基澤 민주당대표, 北核 제재 반대 입장 표명</p> <p>*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p> <p>-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반대함.</p> <p>- 대화와 설득을 통한 개방만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원칙이 돼야 함.</p>	<p>0 외교부, 核問題관련 『備忘錄』 발표</p> <p>- 우리가 현 시점에서 담보의 연속성보장과는 인연이 없는 시료채취와 측정을 허용해주면 IAEA서기국은 지난 시기처럼 불일치를 조작해내고 특별 사찰이요 뭐요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p> <p>- NPT 탈퇴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특수한 지위에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p> <p>- 앞으로 朝·美회담이 열리고 일괄타결원칙에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동시행동 조치들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우리의 특수지위도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임.</p> <p>- 미국의 對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소동, IAEA서기국의 불공정성이 해소되지 않는한 우리의 조약복귀란 상상할 수 없으며, 지금단계에서 담보협정의 이행이란 말도 되지않음</p> <p>- 우리는 NPT 탈퇴효력을 임시정지시킨 특수한 지위에 상응하게 그것도 朝·美회담의 진척여부에 따라 순수 담보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0		<p>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받아들여려는 것만으로도 충분함.</p>	
4. 21		<p>0 金日成, 經濟制裁 해도 충분히 견딘다고 발언          * 在美 한국계 언론인 문명자氏 회견 (5.19字 아사히신문)</p> <p>- 南北韓은 기본합의에 따라 상호 군축이 실현되면 서로 군사기지마저 모두 보여줄 길이 열려 있음.</p> <p>- 단계적으로 무력을 축소한 후 한반도를 자주적으로 방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美軍을 철수하라는 것이지 당장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님.</p> <p>- 휴전이후 지금까지 미측에 의해 달러경제권으로부터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經濟制裁를 받아왔음.</p> <p>- 지금까지 받아온 제재 이상의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음.</p> <p>0 남한 核폐기물 투기 규탄 평양시 군중집회 (중앙노동자회관)</p>	<p>0 페리 美국방장관, 북한 5MW원자로 연료봉 교체시 核彈 4~5개 만들 플루토늄 확보가능 발언</p> <p>* 離韓 기자회견</p> <p>- 현재 가동중인 5MW원자로에서 수주 내 핵연료봉을 교체할 예정인데 여기서 4~5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이 추출될 것으로 추정하고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2	<p>0 姜英勳 韓赤 총재, 비전향 출소자 송환 요구 관련 對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12.3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미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遺憾스럽게 생각함.</li> <li>- 귀측이 진정으로 인도주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南北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부터 취해 나가야함.</li> <li>- 귀측이 인도주의 문제를 말하려 한다면 송환을 약속하고도 억류하고 있는 동진호 선원들부터 즉각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임.</li> <li>- 귀측이 적십자 본연의 정신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440여명의 拉北된 우리측 인사들을 하루속히 송환하며,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의 조속한 재개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함.</li> </ul>	<p>0 『職總』중앙위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비난 談話</p>	<p>0 IAEA, 북한의 연료봉 교체 立會 요청 수락</p>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核 군사압력 고려 * 東京 외국특파원협회 강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對北 경제제재를 UN에 요청하겠음.</li> <li>- 핵의혹해결을 위해 북한에 군사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음.</li> <li>-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 국제의무를 다한다면 북한과 關係正常化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li> </ul> <p>0 모이세예프 러 외무부 한국과장, 한반도 군사분쟁시 북한 지원의무 없다고 발언 * 러 이타르타스通信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군사분쟁이 시</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2			<p>작될 경우 朝蘇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즉시 북한을 지원할 의무는 전혀 없음.</p> <p>- 러시아는 지난 '61년 체결된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미 변경했음.</p>
4. 23		<p>○ 『農勤盟』중앙위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비난談話</p>	
4. 24		<p>○ 조선인민군 창건 6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2. 28 문화회관) * 참석자: 오진우, 박성철, 김영남 최 광</p> <p>&lt; 국방위원 김광진 보고내용 &gt;</p> <p>- 지난해 우리 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과 벌인 정치군사적 대결은 총포소리가 없는 대결전이었으며 우리 黨과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決死戰이었음.</p> <p>-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과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무장하여 원수들이</p>	<p>○ 키드 IAEA 대변인, 연료봉 샘플 채취 거부뎀 訪北 유보 표명</p> <p>- 북한측이 사찰단에 연료봉 샘플채취 허용을 분명히 약속하지 않는한 사찰단을 보내지 않을 것임.</p> <p>- 북한측이 이같은 요구에 동의하기만 하면 금주 후반에 사찰단이 北韓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4		<p>언제 어디서 덤벼든다해도 일격에 소멸할 수 있도록 만단의 '戰鬪動員態勢' 를 갖추고 있어야 하겠음.</p> <p>0 金日成, 전국석탄일꾼대회 참가자 접견</p>	
4. 25		<p>0 金日成·金正日, 인민군 창건 62돌 즈음 군부대 방문 * 영접 : 오진우, 최 광, 이을설, 김봉률, 김광진, 최인덕, 백학림, 김익현</p> <p>0 UN주재 北韓대표부 참사관 한성렬, 경수로 지원때 기존 핵체계 포기 발언</p> <p>- 경수로 지원이 실현되면 흑연 감속로인 寧邊의 실험용 원자로와 건설중인 상업용원자로, 재처리시설등 기존 핵체계를 포기할 수 있음.</p>	<p>0 크리스틴 쉘리 美 국무부 副대변인, 북한에 추가사찰 수용 촉구</p> <p>- 연료봉교체때 사찰관 입회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음.</p> <p>- 북한은 2.15 합의대로 IAEA가 사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허용해야 할 것임.</p> <p>0 日경찰, 朝總聯 오사카 본부 사무실 수색</p>
4. 26	<p>0 韓·日 국방장관회담 개최 (도쿄)</p> <p>-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양국 군사 교류 증진 방안 논의</p>	<p>0 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이성호,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 송환 요구 對南電通文</p> <p>- 지난 전쟁시기에 '민병'으로 활동한 김인서·함세환은 엄연히 전쟁포로이며 따라서</p>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北 연료봉 재충전 반대 표명</p> <p>- 협상기간중 北韓의 핵계획이 동결되기를 바라며 북한측</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6		<p>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아야 할 대상들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관계없는 '이산가족' 문제와 '동진호' 선원 송환문제, 적십자회담 재개문제 등을 들고나온 것은 생역지에 지나지 않음.</li> <li>- 우리에게서 귀측이 말하는 이른바 '남북인사'란 없으며, 있다면 남조선에서 살다가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여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만이 있을뿐임.</li> <li>- 귀 적십자사가 진정으로 인도주의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적십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ul> <p>○ 『汎民聯』북측본부, 문익환 목사 백일추모제 대표단 파견 무산 관련 규탄 聲明</p>	<p>에 연료 재충전조치를 재고토록 요청할 것임.</p>
4. 27	<p>○ 金泳三 대통령, 북한에 南北對話 성의 촉구 * 日야사히신문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韓 회담이 열리면 남북 상호핵사찰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만큼 북한은 南北對話에 성의를 보여야 함.</li> </ul>	<p>○ 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이성호, 빨치산출신 출소자 김병주의 딸 김지현 북송 요청 對南 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얼마전에 우리는 몇년전에 사망한 비전향수 김병주의 맏딸 김지현이 중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음.</li> </ul>	<p>○ 데이비스 美 국무차관, 북한에 IAEA 사찰조건 수락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교체 입회와 관련한 IAEA의 요구가 절대적인만큼 北韓은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담에 대해)前 정권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現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li> <li>-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美國과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으나 핵사찰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한 미국이 관계개선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임.</li> <li>-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韓·美·日 3국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도 일본정국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향수를 아버지로 두었다는 죄 아닌 '죄'로 냉대를 받고 가난에 쪼들리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김지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도는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 공화국 북반부에 그를 데려다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li> <li>- 우리는 김지현과 그의 형제들이 북에 와서 치료를 받고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귀적십자사가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하는 바임.</li> <li>- 만일 그가 지금까지 값지못한 입원비와 약값, 치료비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알리는 바임.</li> </ul> <p>○ 외교부 대변인, IAEA의 연료봉 교체 입회허용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5MW 시험원자력발전소의 노심연료 교체과정에 IAEA의 입회를 허용하였으며, IAEA의 입회활동에는 노심연료 교체활동에 대한 관측, 폐연료봉 계수기에 의한 모든 연료의 측정, 교체된 모든 연료에 대한 IAEA의 봉쇄와 감시, IAEA의 봉인 및 감시기재와 관련한 활동, 운영 및 회계기록 문건들에 대한 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의 사찰을 위해서는 핵연료봉 추출시 사찰단 현장입회, 연료봉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 연료샘플 채취 등 3가지 條件이 충족되어야 함.</li> </ul> <p>○ IAEA, 북한에 전면 사찰 보장요구 書翰 발송</p> <p>* 키드 IAEA 대변인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해 IAEA 사찰단이 핵연료봉 교체과정을 현장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7		<p>등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충분한 사찰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심연료 교체과정에 만일 정기 및 비정기 사찰범위에 속하는 사찰활동문제가 제기된다면 앞으로 朝·美회담에서 핵문제가 일괄타결된 다음에 허용될 수 있을 것임.</li> <li>- 지난 3월 IAEA의 사찰활동에서 제기된 방사화학실험소에 대한 추가사찰문제도 미국과 IAEA의 태도와 밀접한 연관속에서 고찰하고 있음.</li> <li>- 우리는 최근 北南특사교환문제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맞게 미국과 IAEA의 차후 동향을 보고 追加査察 문제도 特例로 허용해줄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이미 그들에게 통보해 주었음.</li> </ul> <p>0 『祖平統』대변인, 문익환 목사 백일추모제 대표단 파견 무산 관련 규탄 談話</p> <p>0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서기국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비난 談話</p> <p>0 『文藝總』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비난 談話</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8		<p>0 외교부,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 을 위한 對美협상 제의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들인 우리와 美國을 적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停戰體系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li> <li>- 제반 사태는 朝·美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반드시 정전협정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li> <li>-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協商을 진행할 것을 미국에 제기함.</li> </ul> <p>0 北韓, 군사정전위(MAC) 기능 중지 통보 *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고 통보하고,</li> </ul>	<p>0 美·北韓 실무접촉 개최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核연료봉 교체시 IAEA사찰단 입회문제, 寧邊 방사화학 실험실 추가사찰 문제, 3단계회담 개최여건 조성문제 등 협의</li> </ul> <p>0 셸리 美國무부 副대변인, 북한 평화협정체결 요구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군사정전위원회 대표가 아니라 美軍 대표와 직접 관계를 갖고자하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음.</li> <li>- 우리에게 관련한 휴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함.</li> </ul> <p>0 하타 日총리, 北核 UN제재시 적극 동참 표명 * 취임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의 결정이 내려지면 憲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8		<p>중립국감독위원회 북측 초청 국인 폴란드 대표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p> <p>- 현 휴전협정은 대체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준수하겠으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판문점내 군사당국자간 直通電話는 계속 유지할 것임을 통보</p> <p>0 朝日우호친선협회, 日本경찰의 『朝總聯』사무실 수색 관련 규탄 성명</p> <p>0 金日成, 『朝總聯』의장 한덕수 일행 접견</p> <p>0 전국축산일꾼 열성자회의 (4. 28~29, 인민문화궁전)</p>	<p>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p> <p>- 북한핵문제는 對話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함</p>
4. 29	<p>0 외무부,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위한 對美 協商제의 관련 논평</p> <p>* 외무부 당국자 논평</p> <p>- 현재의 韓半島의 긴장 및 불안정요인은 북한의 핵 의혹에 그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p> <p>- 북한은 현 단계에서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협조해야 함.</p>	<p>0 외교부 대변인, 日本 경찰의 『朝總聯』사무실 수색(4. 25) 관련 규탄 聲明</p> <p>- 일본 당국은 이른바 위력업무 방해라는 혐의를 걸고 총련 오사까부 본부 사무실과 책임 일꾼들의 주택 그리고 여러 산하지부들을 강제 수색하는 폭력적인 소동을 벌였음.</p> <p>- 이것은 총련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짓밟는 적대 행위이며 우리 共和國에 대한</p>	<p>0 IAEA, 사찰단 訪北 유보</p> <p>* 마이어 IAEA대변인 발표</p> <p>- 4. 27 평양에 전달한 書翰에 대한 답신이 IAEA에 접수됐으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 사찰단의 파견을 연기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은 이미 '92.2.19 발효된 基本合意書에서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하였음.</li> <li>- 북측이 제기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문제는 당연히 南北韓이 직접 당사자로서 상기 합의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임.</li> </ul> <p>○ 韓·러국방장관, 군사교류 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모스크바)</p>	<p>목과할 수 없는 도전행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本 당국이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면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총련과 在日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li> <li>- 우리는 총련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할 것이며 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li> </ul>	<p>○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북한 核의도를 모른다고 발언</p> <p>* 日참의원 방문단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核실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li> <li>- 북한이 정말 핵을 개발하려는 것인지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美國과의 관계개선에 이용하려 하는 것인지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li> </ul>
4. 30	<p>○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국민신뢰에 바탕한 통일정책 추진 방침</p> <p>* 취임 기자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에는 대결구도와 대화라는 狀況의 二重性이 있으며, 양쪽을 다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음.</li> <li>- 정책목표의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상황의 이중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li> </ul>	<p>○ 외교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의 관련 備忘錄 발표 (중앙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정전위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줄 수 없는 빈 종이가 되었음.</li> <li>- 朝·美사이에 적대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체계를 종결짓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30	<p>대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통일업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li> <li>-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절대적으로 실현되고 지켜져야 함. 核이 있다면 폐기해야 하고, 현재 核을 개발중이라면 중지해야함</li> </ul> <p>0 呂만철씨 일가족 5명, 북한 탈출·귀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북한의 제안에 응답해 오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서는 정전협정의 일방 서명국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임.</li> </ul> <p>0 5.1절 경축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p> <p>*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便紙' 와 '남한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呼訴文' 채택</p> <p>0 사회민주당 대변인, 남한 핵무기개발 규탄 聲明</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	<p>0 金泳三 대통령, 하타 신임 日총리와 긴밀 협조체재 유지 재확인 * 전화통화</p>		<p>0 IAEA, 北韓에 연료봉 시료채취 촉구 電文 발송</p> <p>-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시 IAEA가 핵안전협정에 따라 필요한 사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촉구</p> <p>0 가키자와 日외무, 한반도 유사시 대비 자위대法 개정 주장</p>
5. 2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 핵문제 해결 위한 노력 강조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관계장관 오찬</p> <p>- 全장병이 일치단결해 24시간 철통같은 경비태세를 구축토록 함.</p> <p>- 安保관계 장관들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더욱 활성화해 빠른 시일안에 北韓 핵문제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p> <p>- 앞으로 북한 핵문제등 안보현안에 대해선 확고한 原則을 지키면서 단호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함</p>	<p>0 외교부 대변인, 제2의 對공산권수출통제기구(COCOM) 설립 추진 관련 記者會見</p> <p>- 美國이 새로운 수출통제기구를 내오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발전도상국들이 경제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자주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측시키려는 것임.</p> <p>-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한다는 간판을 들고 우리 나라를 통제 대상국에 집어넣은 것임.</p> <p>- 지난시기 코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것처럼 제2의 그 어떤 수출통제기구도 우리를 어찌지 못할것임</p>	<p>0 쉐리 美국무부 副대변인, 北韓 군정위 기능 중지 통보관련 입장 표명</p> <p>- 停戰(協定)이 무용하고 무효라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p> <p>- '92.2 南北韓은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한간 대화에 의해 타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우리는 이같은 접근방식을 강력히 지지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日 등 우방과 더욱 긴밀히 공조,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도교청우당 대변인, 남한 핵 무기개발 규탄 聲明</li> <li>○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관련 규탄 談話</li> <li>○ 『韓民戰』중앙위, 남한 고속 증식로 개발중지 촉구 白書 발표</li> </ul>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군정위 기능 중지 관련 聲明</li> <li>- 북한의 행위는 쌍방 합의에 따라서만 정전협정을 수정·증보토록 되어있는 停戰協定 제61항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위배되는 것임.</li> <li>- 특히 핵문제가 중대한 고비에 와있는 시점에서 현 정전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있는 것은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보지 않을수 없음</li> <li>- 현 정전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성실히 유지해야 하며 현 停戰機構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대변인, 핵연료봉 교체 관련 記者會見</li> <li>- IAEA가 노심연료를 선택 측정 하겠다는 것은 NPT 탈퇴 효력 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우리의 특수지위를 무시하고 정기 및 비정기사찰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음.</li> <li>- 우리가 이번에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과 지난 3월 사찰시 제기되었던 완료되지 못한 사찰활동까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찰단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IAEA가 管理理事會와 UN 安保理에 우리의 핵문제를 제기한 것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줌.</li> <li>- 만일 IAEA가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한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리 美 국방장관, 北 사찰거부 계속면 안보리 회부 발언</li> <li>* 美아시아협회 초청 내셔널프레스 클럽 연설</li> <li>- 미국은 북한핵을 일부 묵인할 방침이 아님.</li> <li>- 외교노력이 계속돼야 하나 북한이 끝내 사찰을 거부할 경우 安保理 회부는 불가피함.</li> <li>- 3단계회담이 열리면 핵을 포함해 외교, 법적 측면, 경제 및 안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제가 들어가게 될 것이며 북한이 맹</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3	<p>무용화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협정의 대체를 포함한 현 정전체계의 전환문제는 南北韓이 당사자가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li> <li>- 北韓은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함은 물론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임.</li> <li>-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부당한 태도를 버리고 하루속히 핵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ul> <p>○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북한에 정전협정 준수 촉구</p> <p>* 방송3社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기본합의서 5조에 따라 정전협정문제는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li> </ul>	<p>를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우리의 운영계획에 따라 노심연료를 교체할 수밖에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심연료 교체는 기술적으로 보나 안전상 견지에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긴급한 문제임.</li> <li>- 입회를 하던 안하던 시험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폐연료계수기와 열형광검출기 및 감시기재가 계속 동작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료교체작업은 철저히 IAEA의 감시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됨.</li> <li>- 우리는 교체된 모든 노심연료를 IAEA의 통제하에 둘 것이며 앞으로 朝·美회담에서 핵문제가 일괄타결되는 시점에 가서 그에 대한 測定도 허용해 줄 것임.</li> </ul> <p>○ 『 祖平統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관련 규탄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南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제4조 1항에는 “北南연락사무소는 北南사이에서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만큼 南側으로서 는 응당 우리측 편지를 접수</li> </ul>	<p>방들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할 용의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가 만족할 만한 사찰을 마치고 또 南北韓간 대화가 열리면 T/S훈련이 재조정될수있음</li> </ul> <p>○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3단계 회담에서 平和協定 협의 가능성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회담에서는 核問題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政治·經濟 현안들이 토의될 수 있을 것임.</li> </ul> <p>○ 日야사히신문, 北 별목공 라오스 파견 추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라오스에 올해 2만명의 별목공을 파견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3월중순 70명의 조사단을 라오스에 보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3	<p>- 핵문제가 중대한 고비에 있는 현 시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님.</p>	<p>하여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당사자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측의 便紙접수를 거부한 것은 北南합의서를 무시하고 꺾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p>	
5. 4	<p>0 金泳三 대통령, 北 핵개발 계속면 자멸 경고 * 『民主平統』 운영·상임 위원 초청 다과회</p> <p>-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그리고 서방의 인내를 시험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自滅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북한 당국에 분명히 경고함.</p> <p>- 북한은 '서울불바다' 발언에 이어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겠다고 對南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나, 이는 北韓의 외교적 고립과 어려운 내부사정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p> <p>- 이제 우리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북한 핵개발은 어떤 경우에도 저지돼야 함.</p>	<p>0 『祖國戰線』 중앙위 의장 정두환, 남한 핵무기개발 규탄 談話</p> <p>0 외교부 대표단, 러시아 방문 (5.5~5.28) * 단장 : 외교부 부부장 이인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4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經協·核연계 계속 유지 방침</p> <p>* 『民主平統』운영·상임위 연설</p> <p>- 정부는 韓半島 비핵화 선언 이행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이며 南北기본합의서를 휴지로 만들어서 는 결코 안됨.</p> <p>- 핵문제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한 經協과 核문제를 연계한 정부의 정책은 계속될 것임.</p>		
5. 5			<p>0 윈스턴 로드 美국무 차관보, 중국 北 핵 개발 지원 언급</p> <p>* 美상원 亞·太소위 청문회</p> <p>- 중국은 과거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같은 지원이 없었더라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현재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을 것임.</p>
5. 6		<p>0 외교부 대변인, '새로운 평화 보장체계 수립' 제의 관련 記者會見</p>	<p>0 IAEA,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의 답신은 사찰단 파견에 미흡 평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기한 것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군사 통수권을 쥐고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법률적·현실적 조건을 고려한데 있음.</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평화협정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함.</li> <li>-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결만을 낳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만이 朝·美사이에 제기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li> <li>- 北南 사이에 불가침을 기본으로 하는 합의서가 채택되고 軍事共同委員會가 조직된 조건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면 그 이행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문제도 완전히 풀리게 될 것임.</li> </ul> <p>0 외교부장 김영남, 연료봉 교체 관련 IAEA사무총장에게 電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폐연료봉의 선택, 분리, 보관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현 특수지위하에서는 절</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6		<p>대로 허용될 수 없는 원칙적 문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이제라도 편견과 독선을 버리고 우리의 해당기관에서 천명한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바란다면 협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음.</li> <li>- 귀측이 사찰시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는 특수사찰을 특별로 허용하고 연속성 보장을 위한 IAEA사찰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측의 부당한 처사로 감시기재가 멈춰서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그로인한 엄중한 결과에 대해 절대 책임질 수 없음.</li> </ul>	
5. 7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IAEA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키로 결정</li> </ul> <p>0 북한 탈출 귀순자 3명, 서울 도착 *김대호(북한 원자력공업부 작업반장) 외 2명</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8		<p>0 平放, 김정일에 '위대한 수령' 호칭 사용</p> <p>- 김정일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세계 혁명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위대한 수령', '세계가 공인하는 탁월한 수령' 등으로 호칭</p> <p>※ '수령' 호칭 연혁</p> <p>- '86. 5.25 中放 논설 '91. 6.30 인민경제대학 보고 '92. 2.13 민주조선 보도 '93.11.18 기자동맹 보고</p> <p>0 『조평통』부위원장 정신혁, 남한 핵무기개발 규탄 談話</p>	
5. 9	<p>0 姜英勳 韓赤 총재, 노부모 방문단 조기실현 및 남북 적십자회담 재개 촉구</p> <p>*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사</p> <p>- 이산가족노부모 방문단 교환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하며 남북적십자회담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함.</p> <p>- 북한은 '87.1.21 동진호 선원들을 돌려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외에도 강제 납북된 어부, 민간항공기 승</p>		<p>0 美·北韓 실무접촉 (뉴욕)</p> <p>* 연료봉 교체 및 추가사찰 문제 논의</p> <p>0 울시 美 CIA국장, 北 '95~'96년 대형 원자로 보유엔 4~6주만에 핵탄 1개 제조능력 보유 언급</p> <p>0 日마이니치신문, 김일성 '91.10 訪中 때 등소평에게 핵개발 약속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9	<p>객, 승무원 등 4백여명의 우리측 억류자들도 즉각 송환해야 함.</p>		<p>0 中, 최근 북한에 연료봉교체 자제 요청 * 張庭延 駐韓중국대사 발언</p> <p>-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5MW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독자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했음.</p>
5. 10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핵문제 해결시 美·北韓 관계개선 지원 발언 * 中央日報 회견</p> <p>- 핵문제의 가닥이 수개월 안에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상황발전에 따라 經協 재개 등 단계적 대응방안을 세워놓고 있음.</p> <p>- 결국 南北, 美·北, 北韓·IAEA 등 모든 문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음. 우리의 對北 정책 기조는 북한이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속에 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p> <p>- 북한이 中國모형을 참조해서 적응하려한다면 우</p>	<p>0 李仁模, 빨치산 출신 출소자 김병주의 딸 김지현에게 便紙 발송</p>	<p>0 日本 도카이 핵연료 공장에서 플루토늄 70kg 발견</p> <p>- IAEA는 일본 핵연료 공장에서 5년반에 걸친 조업기간 동안 신고되지 않은 70kg 가량의 플루토늄이 제조라인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p> <p>0 하타 日총리, 北核 관련 정책방향 제시 * 국회 시정연설</p> <p>- 북한 핵의혹은 국제적 핵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東北亞안보의 중대 위협요인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0	<p>리는 그같은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적십자회담이든 어떤 것이든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南北이 인도주의와 관련된 모든 보따리를 풀어놓고 포괄적으로 논의 해결하자는 입장임.</li> <li>- 북한의 평화협정 대체 주장은 핵문제의 초점을 흐려놓으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北韓의 책임있는 행동을 지켜보겠음.</li> <li>- 남북당사자간에 직접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갈 것임.</li> </ul> <p>0 탈북동포돕기 운동본부 발족 * 회장 : 오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동포 실태 파악 및 정착 지원</li> </ul> <p>0 『民藝總』, '코리아 통일 예술축전' 가을 개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예술인이 참가하는 축전을 올 가을 서울과 日本 5개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국과 협력,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방지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최대한 노력할 것임.</li> <li>- UN 결정을 준수하고 헌법 범위내 긴급시에 대비하며 韓·美와 긴밀히 협조·대응할 것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1		<p>0 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핵문제 이중기준 적용 비난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중동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經濟制裁를 철회시키려 하면서도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없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있음.</li> <li>- 이것이야말로 거꾸로 된 논리이며 국제관계에서의 노골적인 二重基準임.</li> <li>- 美國의 모순적인 행위는 핵문제가 우리 공화국을 고립말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여 조작해낸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음.</li> </ul>	<p>0 IAEA, 사찰단 5.14 派北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드 IAEA 대변인</li> <li>- 北韓이 연료봉교체를 연기한다면 방사화확실험실의 글러브박스내 시료채취와 감마선지도작성 등을 위한 查察團을 수일내에 보내기로 했으며, 북한측에 이같은 방침을 이미 통보했음.</li> <li>0 러시아, 한국에 北韓 별목공귀순 재고 경고</li> <li>* 러 외무부 소식통</li> <li>- 韓國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거나 지금과 같은 과열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별목공처리에 대한 입장을 전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강경 立場 전달</li> </ul>
5. 12	<p>0 金泳三 대통령, 북한 핵개발 절대 저지 확신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향군인회 신임간부 오찬</li> </ul>	<p>0 북한 임업부, 별목공문제 관련 對南 규탄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모략책동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전행위로, 우</li> </ul>	<p>0 美·北韓 실무접촉 개최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이모어 美國무부 군비확산방지국장, 한성렬 北韓 UN주재</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개발은 어떤 경우든 절대 막아야 하며 또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li> <li>○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 핵개발엔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 경고</li> <li>* 신문편집인협회 조찬간담회</li> <li>- 北韓이 핵무기를 반개라도 개발한다면 비핵화 선언은 무효화되는 것임.</li> <li>- 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때까지는 核과 經協과의 연계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임.</li> <li>- 남북상호사찰은 IAEA사찰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핵통제공동위의 역할이 중요함.</li> <li>○ 金大中 亞太재단 이사장, 김일성 訪美 초청 제안</li> <li>*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li> <li>- 미국은 핵개발의도가 없다는 김일성의 진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 임업노동자들의 존엄을 침해하는 反인도적 행위로, 朝·러 인민들사이의 전통적 친선을 해치려는 행위로 준렬히 규탄함.</li> <li>- 남조선이 벌이고 있는 남치모략책동은 오늘 北南관계 전망과 민족의 존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음.</li> <li>- 남조선이 우리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남치공작에 매달린다면 단단히 쓴 맛을 보게될 것임.</li> <li>- 만약 그들중 단 한명이라도 잘못되는 경우 우리 별목노동자들은 단호한 보복을 안길 것임.</li> <li>- 러시아 당국이 南朝鮮의 불순한 행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함.</li> <li>○ 北韓, IAEA에 핵연료봉 교체작업 시작 통보 電文</li> <li>* UN주재 북한대표부 확인</li> <li>-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줬음에도 불구하고 IAEA가 부당한 조건을 제기하면서 사찰단원을 보내지 않아 부득불 연료교체를 시작할 수 밖에 없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참사관 참석</li> <li>○ 델라스키 美국방부 대변인, IAEA 추가 사찰 실시 언급</li> <li>- IAEA사찰단이 5.14 평양으로 떠나 완료되지 못한 핵사찰을 끝내도록 허용할 것이며, 사찰에는 필름과 밧데리 교환, 봉인점검 등이 포함될 것임.</li> <li>- 북한이 연료봉교체 작업을 시작했는지도 공식 확인할 수 있을 것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2	<p>를 초청할 필요가 있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정부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원로정치인들을 북한과 중국에 특사로 파견, 김일성의 체면을 세워주면 북한으로부터 결정적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임.</li> </ul>	<p>된데 대해 遺憾스럽게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심 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므로 기회는 아직 얼마든지 있음.</li> </ul> <p>○ 北·러 외무차관 회담 (5.12~13, 모스크바)</p> <p>*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 파노프 러시아 亞太담당 차관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 벌목공 문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li> </ul>	
5.13	<p>○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 北韓 핵문제와 벌목공 수용 대책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벌목공 문제는 제3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조용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li> </ul> <p>○ 國防部, 『'94 환태평양훈련』(RIMPAC) 참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美·日·캐나다·호주 등 5개국이 참가하는 『'94 환태평양훈련』이 5.26~7.16 중서부 태평양해역에서 실시되며, 사상 최초로 韓·美·日 3개국이 같은 함대로 구성돼 작전을 벌임.</li> </ul>	<p>○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미국 二重基準 적용 비난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자기의 동맹국들이나 일부 다른 나라들의 위협한 核장난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고 있으며 우리와 같이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활동 조차 의심하면서 制裁까지 운운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전파방지를 국가외교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美國의 진의도는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써 평화적 핵활동을 트집잡아 우리와 같은 나라들을 고립 압살하는데 있음.</li> </ul>	<p>○ 쿠나제 駐韓 러시아 대사, 북한 벌목공 귀순신청 全無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 韓國으로 가겠다고거나 러시아에 남아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러시아 정부에 신청한 사례는 하나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까운 시일안에 그런 신청이 있게 되면 사안마다 人權차원에서 신중하게 심의될 것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그늘밑에서 일부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은 더욱 위험한 개선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장차 국제적인 핵무기 전파방지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될 것임.</li> <li>-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며 자주권을 존중하며 동시행동조치를 취하려는 입장에 선다면 朝鮮半島의 핵 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될 것임</li> </ul>	
5. 14	<p>0 金泳三 대통령, 남북정상 회담 먼저 제의않겠다고 발언</p> <p>* 부산매일신문 창간 5주년 기념 특별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25 당시와 현저히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頂上會談이나 특사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li> <li>- 북한측이 核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정상회담을 제의해 온다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음</li> <li>-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하거</li> </ul>	<p>0 외교부 대변인, 핵연료봉 교체 시작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가 사찰단 파견을 회피하고 노심연료 교체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취해주지 않는 조건에서 안전상 이유로 하여 부득불 해당 봉인들을 해체하고 노심연료를 꺼내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음.</li> <li>- NPT 脱退 효력발생을 임시 정지시킨 우리의 특수한 지위하에서 일부 노심연료의 선택보관 등 정기 및 비정기사찰에 속하는 활동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li> <li>- 노심연료 교체작업이 IAEA가 설치한 기체들의 감시하에 진행되고 있는만큼 교체되는 연</li> </ul>	<p>0 키드 IAEA 대변인, 北韓 연료교체 '심각한 단계' 댄 사찰단 조기소환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교체작업이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IAEA 사찰단은 사찰을 단축, 조기 귀환할 것임.</li> </ul> <p>0 베이커 美國방부 대변인, 북한 연료봉 교체 한달째 진행중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한달여 동안 核연료봉 제거 과정에 있음.</li> </ul>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4	<p>나 지연전술을 쓰는 북한의 태도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國際社會도 다른 결심을 하지 않을수 없을것임</p> <p>0 金泳三 대통령, 감상적 통일론 위험 경고 * 스승의 날 수상자 초청 오찬</p> <p>- 멀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지만 예멘 내전에서 보듯이 그저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된다는 感傷的 統一論은 위험함.</p> <p>0 외무부 대변인, 북한 核연료봉 교체작업 시작 통보 관련 論評</p> <p>- IAEA 사무총장이 추가사찰과 후속사찰 실시를 위해 수일내 IAEA 사찰팀을 北韓에 파견키로 한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함</p> <p>-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을 시작했다고 통보한 것은 심히 遺憾스러운 일이며 IAEA 사찰단 訪北을</p>	<p>료봉들이 다른 목적에 유용되지 않겠는가에 대하여 우려할 근거는 조금도 없음.</p> <p>- 노심연료 교체작업을 도중에 정지시키는 것은 안전상 견지에서 새로운 위험성을 야기시킬 수 있음.</p> <p>- 노심연료 교체작업이 시작에 불과한 만큼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아직 얼마든지 남아있음</p>	<p>- 이 과정이 핵연료봉에서 핵폭탄제조용 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알고있지 않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4	<p>통해 연료봉 교체와 관련한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를 기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해 모든 연료봉 교체시 IAEA가 요구하는 연료봉 샘플의 선정 및 보관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함.</li> <li>- 북한측이 IAEA가 요구하는 조치를 수락함으로써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li> </ul>		
5. 16	<p>0 宋榮大 통일원 차관, 북한 핵개발 저지 및 보유시 완전 폐기 강조 * 통일고문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표는 北韓의 핵무기 개발 저지 및 핵무기 보유시 이의 완전한 폐기에 있음</li> <li>- IAEA 사찰 실시와 함께 한반도 비핵선언 이행을 위한 南北對話 재개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임.</li> <li>- 현 停戰協定은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계속 유효하며 이 문제는 반드시 南北韓이 협의 해결해야함.</li> </ul>		<p>0 美내셔널 프레스 클럽(NPC), 김일성 訪美초청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에게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오찬연설을 하도록 招請狀을 발송할 것임.</li> <li>- 이 초청이 결코 김일성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li> </ul> <p>0 하타 日총리, 對北 제재 동참 표명 * 참의원 회의</p>

■ 5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북한의 자체核시설 전면사찰 거부에 따라 미국이 對北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동참할 것임.</li> </ul>
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사찰단, 平壤 도착</li> <li>- 5.17~24 (8일간) 寧邊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과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 시작 여부 확인</li> <li>○ 美 국무부, 김일성 訪美 부적절 논평</li> <li>- 현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이 美國을 방문하는 것을 적절할 것으로 보지 않음.</li> </ul>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벌목공 5명 서울 도착</li> <li>* 최청남, 김동운, 김승철, 백호철, 원유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올림픽위원장 박명철, 히로시마 아시아게임 단체경기 불참 표명</li> <li>- 단체종목 선수명단을 제출시킨인 5.5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단체경기 불참을 의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사찰단, 사찰 활동개시(5.18~25)</li> <li>○ 英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북한 핵무기 보유 판단</li> <li>* 제럴드 시걸 연구원</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8		<p>0 『광주인민봉기』 14돌기념 평양시 군중대회 (평양체육관) *참석: 박성철, 김용순, 장 철유미영, 염태준, 정두환여연구, 주성일, 최용해</p>	<p>-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판단은 미국·유럽국가들의 정보분석등에 근거한 것임.</p> <p>0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 北 인도에 긴급 식량원조 요청說 보도</p>
5. 19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美·北 3단계회담 6월초 개최 가능성 언급</p> <p>- 연료봉 교체작업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아주 심각하지 않을 때 美·北 3단계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시기는 현실적으로 내달초가 될 것임.</p> <p>- 북한이 IAEA의 입회없이 '線을 넘어' 연료봉 교체작업을 했을 경우 安保理회부는 불가피하며, 어느 정도가 선을 넘는 것인지 전적으로 IAEA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韓·美 양국의 입장임.</p>	<p>0 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이성호, 김인서·함세환 및 김지현 송환 재촉구 對南電通文</p> <p>-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回信조차 보내지 않는 것은 인도주의를 본연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적십자인의 옳은 처사라고 말할 수 없음.</p> <p>- 전쟁포로인 김인서·함세환 문제를 국제적으로 규탄되고 있는 國家保安法에 맞추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국제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릇된 행위임.</p> <p>- 이산가족문제 보다 더 절박한 김인서·함세환 송환문제는 외면하면서 마치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심이나 있는 것처럼</p>	<p>0 IAEA, 北 핵연료봉 교체 시작 공식확인 및 立會 협상단 파견 관련 聲明</p> <p>- 사찰단은 北韓이 이미 연료교체작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p> <p>- IAEA는 더 이상의 연료교체가 진행될 경우 과거 핵물질 전용여부를 밝혀내는데 필요한 核안전조치를 취해나갈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음.</p> <p>- IAEA는 5.19 북한에 電文을 보내 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9		<p>나서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출신 비전향수였던 김병주의 딸 김지현을 북에 데려와 병치료를 해주겠다고 한 우리의 인도주의적 제의에 지금까지 긍정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li> <li>- 우리측 인도주의적인 제의들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설 것을 촉구함.</li> </ul> <p>○ 外交部 대변인, 日本 핵연료공장 플루토늄 발견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는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되게 이 문제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美國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li> <li>- 日本 당국은 전국적으로 감추어 두고 있는 플루토늄의 총량을 국제사회에 앞에 밝히고 핵무장화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함.</li> <li>- 日本의 핵무장화가 위험계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된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非核化는 실질적으로 의의가 없게 되었다고 우리는 간주함.</li> </ul>	<p>안전조치없이 핵연료를 교체하는 것은 핵안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이며, 이 사실을 IAEA 이사회와 UN 안보리에 보고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는 핵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여건 마련 및 그때까지 작업 중단을 北韓측에 촉구했음.</li> <li>- 핵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 조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즉각 관계자팀을 平壤에 보내겠다고 북한측에 제의했음.</li> </ul> <p>○ 日銀, 對北 달러 송금 전면 중단 * 日도쿄신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本은행들은 달러 베이스로 북한에 들어가는 送金の 증가를 올봄부터 사실상 전면 중지</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0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갔지만 비관적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li> <li>- IAEA측이 제안한 협상단 派北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일단 주시하기로 결정</li> <li>- 북한이 연료봉 교체작업을 중단하고 사찰의무를 준수하라는 IAEA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UN 安保理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기존입장 재확인</li> </ul> <p>0 外務部 대변인, 북한 연료 교체시작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5MW 원자로의 연료 교체를 시작했음이 IAEA 사찰팀에 의해 확인되었는바, 이에 대해 遺憾과 우려를 표명함.</li> <li>- 北韓이 연료 교체를 더이상 계속하지 않는 한 아직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IAEA 발표에 유의함</li> <li>- 북한이 IAEA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5MW 원</li> </ul>	<p>0 駐中 북한대사 주창준, 核추출물 사찰단 입회下 봉인 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核안전연속성 보장과 투명성을 위해, 核연료봉을 교체하면서 추출된 물질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IAEA 사찰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할 것임.</li> <li>- 美·北韓 3단계회담이 실현돼 협상이 일괄타결되면 IAEA는 봉인된 추출물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임.</li> </ul>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北 연료봉교체는 '안전조치 중대 위반' 이라고 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연료봉인출은 IAEA의 연료선정 및 계측을 위한 보관문제에 관한 합의없이 이루어져 안전조치의 중대한 위반임.</li> <li>- IAEA는 원자로에서 빼낸 연료의 전용이 없다는 점을 자신하고 있으며 제거된 연료봉들이 인근 저장수조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음.</li> <li>- 3단계 회담을 위해서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밝힌 추가사찰을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본질적으로 또는 아마도 거의 완료됐다고 봄.</li> </ul> <p>0 美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 金日成에 초청장 발송</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0	<p>자로의 연료 교체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IAEA·北韓간 협의의 진행결과를 주시하면서, 추후 대책에 관해 우방국과 긴밀히 協議해 나갈 것임.</li> </ul> <p>○ 韓·美 국방장관간 직통전화(hot line)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炳台 국방장관은 5.20 양국 국방부간 최초로 개통된 직통전화망을 통해 페리 美 국방장관과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li> </ul> <p>○ 北韓 벌목공 1명 귀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일운(30세)氏가 제3국 적선을 이용, 인천항에 밀입국해 귀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인 NPC회장은 金日成에게 워싱턴 NPC에서 오찬연설을 해 주도록 초청하는 서한을 UN 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li> </ul> <p>○ 국제표준화기구(ISO), 한글 로마자 표기 관련 『기술보고서』 채택 (스톡홀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로마자표기에 관한 국제표준어 제정회의에서 南北韓 양측의 案을 모두 포함한 『기술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한글 로마자 표기 單一基準 제정의 계기 마련</li> </ul>
5.21	<p>○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벌목공 송환 요구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벌목공들의 자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하고 있음.</li> </ul>	<p>○ 『祖平統』서기국, 귀순 북한 벌목공 송환 요구 對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은 정상적인 벌목노동을 하고 있던 우리의 공민 6명을 납치하여 서울로 끌어가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음.</li> <li>- 귀측의 행위는 이 강토에서</li> </ul>	<p>○ 워싱턴 포스트紙, 美,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 결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클린턴 행정부는 백악관 고위대책회의를 열어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결정</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이를 政治問題로 변질시키면서 한반도에 또 다른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음.</li> <li>- 벌목공들은 自由와 福祉를 찾아 우리측에 스스로 귀순해온 만큼 납치 운운하며 시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li> <li>- 북한이 긴장고조를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강력히 促求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고 이산 가족을 증폭시키는 대범죄로, 격폐된 北南關係를 극도로 냉각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도전임.</li> <li>- 귀축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는 그 무엇으로서도 감쌀 수 없으며 용납될 수 없음.</li> <li>- 이번에 강제로 유인 납치해간 우리의 모든 벌목노동자들을 무조건 당장 돌려보내야 하며 민족과 세계앞에 사죄해야 함</li> <li>- 만일 돌려보내지 않고 납치행위를 계속 감행하는 경우 북남관계 전반에는 엄중한 후과가 미치게 될 것이며 貴側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루고야 말 것임.</li> </ul> <p>○ 北韓, IAEA에 연료봉 입회협상팀 파견 제의 수락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외교부 대변인, 北核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 聲明</li> <li>- IAEA와 북한이 이견을 協議를 통해 해소할것을 희망함</li> <li>- 기술적요소의 문제를 UN 安保理에 제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li> <li>○ 南北예멘 재분단</li> <li>- 南예멘은 통일 예멘으로부터 분리하여 아덴을 수도로 한 '예멘민주공화국' 창설을 선포</li> </ul>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泳三 대통령, 北韓에 핵 포기·남북대화 재개 촉구</li> <li>* 러 특파원들과 회견</li> <li>-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平和와 統一을 원한다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문제를 미국만을 상대로 풀려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한국과 대화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交部 대변인, 환태평양군사훈련(RIMPAC) 관련 정전협정 의무 이행 경고 談話</li> <li>- 미국은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군사행동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평화적 발기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 이성적인 처사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韓 비공식 실무접촉 (뉴욕)</li> <li>* 세이모어 美국무부 핵비확산局 부책임자, 한성렬 UN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 참석</li> <li>○ 매커리 美 국무부 대변인, 핵연료봉</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3	<p>시작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의 북핵문제 관련 國際會議 개최제안은 한 반도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러시아의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환영함.</li> </ul>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 방사화학실험실 계속 유지면 非核化 공동선언 再考 발언 * 국회 외무통일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核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을 계속 유지한다면 南北韓 비핵화공동선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음.</li> <li>-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 현실임.</li> <li>- NPT 만료시한이 내년 상반기로 다가온만큼 南北韓의 핵문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시점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일 美國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조선정전협정의 의무를 더는 이행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함.</li> </ul>	<p>교체 관련 북한에 IAEA와 합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협상단이 북한측과 연료봉 안전조치 유지문제에 관해 합의한다면 3단계회담의 모든 장애가 없어질것임</li> </ul> <p>0 무라다 日 방위청 방위국장, 북핵관련 韓半島 유사시 대비 작전계획 강구발언 * 국회 예산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자위대가 유사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li> </ul>
5.24	<p>0 金炯基 통일원 대변인, 李洪九부총리의 '非核化공동선언 재검토 가능' 발언 보완설명</p>	<p>0 북한, 軍停委 대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설치 통보 * 북한軍 유영철 상좌·UN軍 홀러리 중령 판문점접촉</p>	<p>0 IAEA 협상대표단, 核연료봉 교체 입회 협상차 平壤 도착</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이 재처리시설을 계속 유지하면 非核化 공동 선언을 무효화시키는 중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IAEA와 미국등 국제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 공동 선언을 위배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임.</li> <li>0 韓·美·日, 북한 핵문제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 (뉴욕)</li> <li>* 김삼훈 核담당대사,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유키오 日외무성 심의관 참석</li> <li>- 美·北 3단계회담과 관련한 공동대응책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위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협상기구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개설했다고 UN군측에 통보</li> <li>- 중장 이찬복을 대표로, 대좌 박림수를 부대표로, 상좌 유영철을 책임연락군관으로, 중좌 신군성을 연락군관으로 임명</li> <li>0 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對북한 '테러국가' 지정 비난 담화</li> <li>0 북한·IAEA, 핵연료봉 교체문제 관련 실무협상 개최</li> </ul>	
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金泳三 대통령, '경제력 강해야 統一 뒷받침' 발언</li> <li>* 경제부처 국장 오찬</li> <li>- 우리는 반드시 統一을 달성해야 하지만 예멘사태에서 보듯이 환상적인 통일론은 절대 안됨.</li> <li>- 우리는 통일을 하되 지킬 수 있는 통일을 해야 함.</li> <li>- 經濟力이 강해야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정부·정당·사회단체 대표협의회 개최 (평양)</li> <li>- '민족대회' 관련 『祖平統』 서기국에 對南電通文 발송 위임 및 '민족대회 準備委' 북측대표 선출</li> <li>* 정문산(정무원 사무국장) 김영호(사회민주당 부위원장) 백남준(『祖平統』서기국장) 김영남(『職總』부위원장) 강영섭(기독교도연맹 위원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북한·IAEA 핵연료봉 교체 입회문제 관련 實務協商 개최 (5.25~27, 平壤)</li> <li>0 마이어 IAEA대변인, 추가사찰 완료 및 입회협상 개시 발표</li> <li>- IAEA 사찰단은 방사화학실험실 사찰 의무는 완료했으나 5MW 원자로 사용후 연료봉의 試料는 채취하지 못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5		<p>0 『祖平統』서기국장 백남준, 민족대회 소집제의 호응 촉구 對南電通文</p> <p>- 우리측은 지난 4월11일, 오는 8.15를 계기로 당국과 정당, 단체의 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대회를 소집할것을 발기하고 북과남, 해외에서 5명의 대표를 망라한 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중에 제1차회의를 평양또는 서울에서 가질데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음.</p> <p>- 민족대회가 소집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며 기탄없는 협의를 통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실현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방도를 모색할수 있을것임.</p> <p>- 우리는 귀 당국이 민족대회 소집 제안에 긍정적 호응을 보일 뿐 아니라 민족대회준비위원회 남측대표들을 빨리 선출함으로써 우리와 보조를 같이하게 되기를 기대함.</p> <p>0 원자력총국장 박용남, 일본내 다량의 플루토늄 발견 관련 IAEA에 特別措置 촉구 便紙</p>	<p>- 연료봉 교체입회문제 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IAEA대표단이 5.25 북한측과 協商에 들어갔음.</p> <p>0 北韓·러시아, 새 『임업협정』案에 합의</p> <p>* 리 이타르 타스 통신 보도</p> <p>- 북한과 러시아는 별목공의 파업권 인정 등 人權 보장을 강화한 새 협정안에 합의</p> <p>0 日니혼게이자이 신문, 美 북한 두만강 개발계획 지원 검토 보도</p> <p>- 미국은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UNDP 주도아래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 등에 대한 경제 지원 입장을 표명할 예정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日本의 핵무장화가 아시아 특히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되고 있는 오늘, 이번 사건을 그저 스쳐 보낼 수 없음.</li> <li>- IAEA 서기국이 지체없이 특별 이사회에서 이번 플루토늄 은닉사건을 상정 토의하고 日本 국내에 있는 모든 핵시설들에 대하여 보다 전면적이고 철저한 特別措置를 취하는 등의 촉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li> </ul> <p>○ 外交部 대변인, UN 군축회의 (5.17-7.1, 제네바)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존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하는 의의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NPT의 차별적인 성격이 제거되어야 함.</li> <li>- 美國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우리의 핵의혹을 가지고 소란을 피우면서도 최근 日本의 플루토늄 은닉사건과 같은 실제적인 핵무장화 위협에 대해서는 모르는척하는 것은 이중 기준 적용의 극치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6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준수가 중요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li> <li>- 北韓에 대해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호응할 것을 촉구</li> <li>- 停戰協定の 일방적 폐기란 있을 수 없으며, 정전협정의 대체문제는 반드시 政治·軍事的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위에서 남북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 정립</li> <li>- 지금 시점에서 核-經協 연계정책의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 확인</li> </ul> <p>0 金大中 亞太재단 이사장, 통일방안 國民投票 필요 주장</p> <p>*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統一方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고 우리 입장도 훨씬 더 유리해짐</li> </ul>	<p>0 제2차 『汎民聯』공동의장단 회의 (인민문화궁전)</p> <p>* 北·南·海外본부 대표들의 電話회의 형식으로 진행</p> <p style="text-align: center;">〈 공동합의문 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차 범민족대회를 '민족대 단결과 민족자주' 주제로 8.10~15 서울에서 개최</li> <li>2. '민족대단결의 해' 선포에 따른 『汎民聯』사업계획과 관련, 6.1~8.15까지 3단계의 운동기간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6.1~6.25) : 민족자주권 수호와 민족대단결 방도를 모색</li> <li>· 2단계(6.26~7.27) : 전쟁위협을 분쇄하고 분단 종식을 촉구</li> <li>· 3단계(7.28~8.15) : 제5차 범민족대회 개최</li> </ul> </li> <li>3. 공동사무국 기구를 보강하고 공동기관지를 발간</li> </ol> <p>0 金日成, 재미교포 손원태 접견</p> <p>0 金日成, 美내셔널 프레스 클럽 訪美 초청 거절</p>	<p>0 美·北韓 실무접촉 개최 (뉴욕)</p> <p>0 갈루치 美 핵전담대사, 북한 핵문제 관련 記者會見</p> <p>* 한겨레신문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양국은 좀더 정상적인 관계로 움직이게 될 것이며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는 베트남과 중국 등 여러 모델이 있을 수 있음.</li> <li>- 지난 1년간의 북한과의 회담을 평가한다면, 肯定的인 면은 △北핵시설에 대한 핵안전조치 유지 △북한의 플루토늄 未추출 △ 몇 차례의 핵사찰 실시 △북한의 NPT체제내 잔류 등이며, 否定的인 면은 △북한이 실제 얼마나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 불일치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정책의 집행은 政府의 몫이지만 통일논의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림팩(RIMPAC)훈련 개시(5.26~7.16)</li> <li>0 日도쿄신문, 美 3단 계획담시 北 핵개발 관련 정보공개 요구 방침 보도</li> </ul>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統一院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촉구 對南電通文 관련 論評</li> <li>- 북한측이 또다시 구태의 연한 政治宣傳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임.</li> <li>- 북한은 민족의 생존과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성의를 다해야함.</li> <li>-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토대위에서 南北基本合意書 이행을 위한 실천기구를 하루속히 정상가동하는데 호응해 나올 것을 요구함</li> <li>- 북한은 소모적 정치선전은 물론, 최고당국자에 대한 誹謗을 즉각 중지하고 쌍방간의 신뢰를 조성해 나가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노동신문, 예멘 內戰에 관한 국내외 언론 보도 관련 '연방제' 통일방안 옹호</li> <li>- 예멘 內戰과 관련하여 일본과 남조선이 우리의 聯邦制 통일방안을 헐뜯는 여론을 퍼뜨리고 있음.</li> <li>- 예멘에서의 통일과정과 우리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원칙과 방도, 내용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li> <li>- 예멘에서는 北과 南이 화해와 단합을 이루지 못한채 양측 수반의 합의에 따라 통합하였으나 聯邦制 통일방안은 전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와 원칙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li> <li>- 예멘에서는 北과 南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의 균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담보가 없었으나 聯邦制 통일방안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공정하게 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블릭스 IAEA 사무총장, UN사무총장에게 北核 보고서 제출</li> <li>- 지금 핵원자로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연료가 인출됐으며 이 작업은 IAEA가 필요한 전면적인 安全措施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음.</li> <li>- 만약 인출작업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될 경우 IAEA가 계측을 위해 선별·분리·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수일내에 상실될 것임.</li> <li>-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IAEA는 북한의 모든 핵물질이 실제로 안전조</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7	<p>○ 金泳三 대통령, 聯邦制 통일 반대 표명 * 공군부대 순시</p> <p>- 연방제 통일을 원하는 것은 잘못되고 큰 오류를 범하는 일임.</p> <p>- 감상적이고 허황되게 얘기하는 聯邦制 통일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통일을 해야 함.</p> <p>○ 金泳三 대통령, 北韓 핵개발 계속면 강도 높은 制裁 불가피 발언 * 러 이즈베스티야紙 회견</p> <p>- 북한이 핵개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制裁는 불가피할 것임.</p> <p>- 國家保安法은 우리의 특수안보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임.</p> <p>- 북한이 對南赤化 기도를 버리고 핵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적 협력관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한 선택임.</p>	<p>하고 정치세력들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담보가 마련되어 있음.</p> <p>- 예멘에서는 北과 南이 무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통솔권도 분할된 상태에서 통합되었으나 聯邦制 통일방안에서는 군대를 대폭 축소하고 쌍방의 군대를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연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둘 것을 예견하고 있음.</p> <p>- 日本과 남조선의 일부 언론들이 예멘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방안을 헐뜯는 것은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불순세력의 속심을 대변한 것임.</p> <p>○ 北韓, 『자유무역항규정』('94. 4 제정) 및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94. 3 제정) 發表 * 중앙통신</p>	<p>치하에 놓여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없을 것임.</p> <p>○ UN안보리, 北核관련 비공식 전체회의 및 상임이사국 회의</p> <p>- 對北결의안을 준비하기로 잠정 합의</p> <p>○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3단계회담 취소 경고</p> <p>- 만약 북한이 계속 연료봉을 교체한다면 美國은 3단계 고위급회담을 취소할 것임.</p> <p>-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UN 안보리로 넘겨져 經濟制裁를 포함한 대응책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8	<p>○ 外務部 대변인, IAEA·북한간 협상결렬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핵연료봉의 인출을 즉각 중단하고 NPT 당사국으로서 협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li> <li>- 만약 북한이 핵연료봉의 인출작업을 계속해 IAEA에 의한 계측 가능성이 상실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음</li> </ul> <p>○ 金泳三 대통령, 北韓에 식량지원 비공식 제의 확인 * 청와대 여야 領袖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식적으로 보유 저장미를 일부 보내주겠다고 제의했으나 北韓은 거부했음.</li> </ul> <p>○ 金泳三 대통령, 한반도 전쟁 가능성 '사실상 없다'고 발언 * 뉴스위크誌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韓半島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li> <li>- 北韓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li> </ul>	<p>○ 외교부 대변인, 北·IAEA간 핵연료봉 교체 협상(5.25~27)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협상에서 IAEA측은 노심연료의 선택 및 분리 보관 방법을 제기했으나 우리의 특수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수될 수 없다는데 대하여 쌍방 사이에 양해가 이룩되었음.</li> <li>- 협상에서는 우리가 노심연료 교체작업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의 합리성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음.</li> <li>-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의 방법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협상과정을 통하여 이 방법은 보다 보충 완성되게 되었음.</li> <li>- 우리는 이번 IAEA와의 협상과 입회활동을 통하여 평화적 핵활동을 철저히 IAEA의 통제하에 두려는 우리의 선의가 최 대한 표시되었다고 인정함.</li> <li>- 우리는 앞으로도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朝·美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임.</li> </ul>	<p>○ IAEA, 북한과의 연료봉 교체문제 協商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27 IAEA 관리들은 북한에서의 협의를 종료하였으나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음.</li> <li>- 북한은, 원자로 노심의 이력을 검증하기 위한, 특히 이것이 최초의 노심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추후 계측을 위해 연료봉 선택·분리·보관을 목적으로 제기한 모든 IAEA의 제안들을 거부했음</li> <li>- 북한은 '특수한 지위'를 내세워 제기된 IAEA의 검증조치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음.</li> <li>- 북한에 의해 제기된 제안은 IAEA가 원자로 노심의 이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받아들</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8	<p>점을 알고 있음.</p> <p>- 한반도에 어떠한 위기상황도 조성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危機說이 설령 있다면 그것은 언론의 과장된 기사때문임.</p>	<p>0 『祖平統』대변인, 통일원장관의 '비핵화 공동선언 사실상 무효화' 발언 비난 聲明</p> <p>- 남조선 통일원장관의 발언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고 그 파기를 선언한 것임.</p> <p>-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이며 北南관계의 전망을 더욱 암담하게 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임.</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배신행위가 북남관계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비핵화 공동선언의 제약에서 벗어나 핵무기 개발을 다그쳐 보려는 무모한 책동이 어떤 파국적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데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함.</p>	<p>일 수 없었음.</p> <p>- 2명의 사찰관들이 추후 진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 북한에 잔류하고 있음.</p> <p>0 日니혼게이자이紙, 美 북한 지원 多者 협의체 제안 보도</p> <p>- 미국은 북한의 전면 핵사찰 수락을 조건으로 韓·美·日 3국과 中·러 및 IBRD·UNDP등에 의한 對北 '다국간 경제지원' 구상을 韓·日 양국에 제안했다고 보도</p>
5.29		<p>0 金日成,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 등 평화회담 참가자 接見</p>	<p>0 南北韓 총 6천만弗 상당 물물교환 합의說</p> <p>* 조선샘물주식회사 총사장 차경주 발언 (홍콩)</p> <p>- 북한 조선샘물주식회사와 남한 한국</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9			<p>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총 6천만弗에 이르는 물물교환에 합의했음.</p>
5. 30	<p>○ 大統領 주재 안보관계장관 회의 개최 * 북핵 핵문제와 관련 현안과 안보상황 논의</p> <p>&lt;金泳三 대통령 발언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대한 기로에 봉착해 있음.</li> <li>- 북한은 핵연료봉 교체작업을 즉각 中斷해야 함.</li> <li>- 핵연료봉의 선정·보관·계측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확고한 입장을 바탕으로 美國 등 관계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함.</li> <li>- 북한 핵문제가 UN안보리에 재상정될 가능성에 따른 여러가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한 對備策을 수립해야 함.</li> </ul>		<p>○ UN안보리, 北韓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 관련 議長聲明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이 지금과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IAEA 기준에 따른 추후 계측을 위해 연료봉을 선택·분리·보관할 수 있는 기회가 수일내 상실될 것이라는 IAEA 評價에 심각하게 우려함.</li> <li>- 북한이 IAEA 요구에 따라 연료 계측의 기술적 가능성을 보존하는 방법으로만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li>-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관해 IAEA와 북한간 즉각적인 協議를 요청함.</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위기에 처해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야 함</li> <li>○ 韓·美 정상, 북한 핵문제 전화협의</li> <li>- 북한 핵상황이 매우 위험한 시점에 도달했으며, 韓·美간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처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일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MW 원자로에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北韓에 사찰관들을 유지시킬 것을 IAEA사무총장에게 요청함.</li> <li>- 본건을 계속 계류시키고,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안보리가 追加審議를 가질 것임을 결정함.</li> </ul>
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li> <li>* UN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른 정부 입장 검토</li> <li>○ 外務部 대변인, UN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관련 聲明</li> <li>- UN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이를 전폭 지지함.</li> <li>-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더이상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시키지 말 것을 警告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民戰』중앙위, '문민정권의 화폐개혁에 관한 공보' 발표</li> <li>* 6.4字 中放 보도</li> <li>○ UN주재 북한副대사 김수만, 안보리 의장성명 수용 거부</li> <li>- 북한에 압력을 가해 숨통을 조이려는 美國과 IAEA의 또한차례의 시도로 단호히 거부 부함.</li> <li>- 모든 현안은 安保理가 아닌 美·北 직접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함. 그러나 IAEA와는 앞으로 더 협상을 벌일 의향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 포스트紙, 美 대북제재 방침 결정 보도</li> <li>-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안보회의를 열어 對북한 制裁를 사실상 결정했다고 보도</li> <li>○ 히로시 日관방장관, 안보리 의장성명 지지 공식 표명</li> <li>- 일본 정부는 UN 안보리의 議長聲明을 지지함.</li> <li>- 북한은 연료봉 교</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이 연료봉 인출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IAEA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수락함으로써 NPT 당사국으로서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li>○ 金泳三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절명의 가치' 라고 강조</li> <li>* 호국보훈의 달 즈음 談話</li> <li>- 냉전체제가 막을 내린 오늘의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li> <li>-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절대절명의 가치임.</li> <li>○ 韓·美 정상, 북한 핵문제 관련 전화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 운호진, 연료봉 교체 중단 拒否</li> <li>- 5MW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中斷할 수 없음.</li> <li>- 사용후 연료봉을 감시카메라가 작동되는 가운데 40개씩 일련번호를 매겨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IAEA가 추후계측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li> <li>○ 北韓, 실크웜 對艦 미사일 발사 실험</li> <li>* 美 국방부 확인</li> <li>- 동해상에서 실크웜 對艦 크루즈 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 (사정거리 200km)</li> <li>○ 조선사회민주당 부위원장 김영호, 민족대회 소집 관련 정당 간 접촉 제의 談話</li> <li>○ 외교부장 김영남, 비동맹 外相회의 참석 (5.31~6.3, 이집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을 즉각 중지하고 IAEA와 조속히 협의할것을 촉구함</li> <li>○ 워싱턴 타임스紙, 北 핵연료봉 교체 60% 이상 진행 보도</li> <li>* 美 국무부 소식통 인용</li> <li>- 北韓이 지금까지 원자로에서 빼낸 연료봉은 4,850개로 전체의 60%가 넘고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	<p>0 韓·러 정상회담 개막 (6.1~2, 모스크바)</p> <p>0 金泳三 대통령,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4角 외교 완결' 언급 * 訪러 출국인사</p> <p>- 러시아를 방문, 취임 이래 추구해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4角외교를 완결하고자 함.</p> <p>-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p> <p>- 이번 방문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冷戰時代가 확실히 종식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p>	<p>0 외교부 대변인, 안보리 의장성명 관련 談話</p> <p>- UN 안보리가 그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이 IAEA가 그릇되게 내린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문제를 논의한 것은 천만부당한 것임.</p> <p>- 지금 노심연료 교체작업은 앞으로 우리의 특수지위가 해소되는 시점에 가서 IAEA가 요구하는 차후 測定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충분히 보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p> <p>- 얼마전에 노심연료 교체속도가 좀 빠른 적이 있는 것은 연료교체기계의 최대 性能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음.</p> <p>- 또다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우리는 더이상 부당한 요구의 희생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그 무엇에도 구속됨이 없이 자기의 길을 따라 나갈 수 밖에 없음.</p> <p>- 만일 IAEA가 노심연료의 차후 測定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이 깨졌다고 선포하거나 UN 안보리가 제재요, 뒤요하고 압력을 가한다면 그에 대응한 決定的인 措置를 취해 나가는</p>	<p>0 日교도통신, 北 해안지역 기뢰부설說 보도</p> <p>- 日本 방위청은 북한이 해안지역에 기뢰를 부설했다는 보도를 확인중에 있다고 방위청 관리가 밝혔음.</p> <p>0 가키자와 日외상, 韓·美·日 독자제재 가능 언급 * 중의원 예산위</p> <p>- 일본은 UN 제재가 유보되더라도 韓·美 양국과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취할수 있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		<p>길을 택하게 될 것이며, 평화적 핵활동의 연속적인 공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문제를 공정하게 대하고 對話와 평화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는데 대해서는 아무 때건 더없이 성근한 자세로 응해 나설 것이지만,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하는데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대처해 나갈 것임.</li> </ul> <p>0 金日成, 전쟁준비 완료 발언 *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 면담 (6.16字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紙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핵사찰을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북한은 戰爭을 할 준비가 돼있음.</li> <li>-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美國과 직접대화를 갖기를 원함.</li> <li>- 북한은 공격을 받으면 저항할 것이지만 戰爭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	<p>0 韓·러 정상회담 종료 (6.1~2, 모스크바)</p> <p>&lt; 韓·러공동선언 요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관계가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함.</li> <li>- 韓國의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러시아는 호의적으로 고려함.</li> <li>- 남북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停戰體制가 유지되어야함</li> <li>- 韓半島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이 긴요하며, 북한이 NPT 의무를 이행하고 IAEA 사찰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li> <li>- 한국은 러시아의 '한반도의 안보 및 비핵지위에 관한 多者會議' 소집에 관한 제의에 유의함.</li> <li>- 정상간의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청와대와 크렘린간에 直通電話 (Hot Line)를 설치함.</li> </ul> <p>&lt; 공동기자회견 要旨 &gt;</p>	<p>0 원자력총국 대변인,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UN 안보리 보고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노심연료의 선택 보관은 우리의 특수한 지위가 해소되기 전에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li> <li>- IAEA는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인 5.27 협상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부당한 평가를 내린 報告를 서둘러 UN 안보리에 제출했음.</li> <li>- 제반 사실은 IAEA가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처음부터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li> <li>- 만일 IAEA가 노심연료의 차후 측정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이 깨졌다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응한 決定的인 措置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임.</li> </ul> <p>0 외교부장 김영남,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관련 최근 UN사무총장에게 便紙 발송</p> <p>* 中放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의 전략적 목적에 복무하고 있는 남조선 주둔 美軍이 UN군으로 행세할 조건은 더는</li> </ul>	<p>0 블릭스 IAEA 사무총장, UN 안보리에 北核연료봉 추후 계속 불가능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는 북한의 5MW 실험용원자로 핵연료봉 교체와 관련하여 북한이 과거 핵연료를 전용했는지 여부를 밝혀줄 추후 계속을 위한 연료봉 선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음.</li> </ul> <p>0 美, 對北제재안 UN 안보리 상정 발표</p> <p>* 美國무부 특별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의 보고에 따라 美·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모두 취소함.</li> <li>- 북한 핵문제는 이제 안보리에 회부됐으며 美정부는 안보리가 對북한 제재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토의할 것으로 생각함.</li> </ul> <p>- 미국은 對북한제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	<p>[ 金泳三 대통령 발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북한에 대해 武器 부품을 계속 지원·판매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했고 엘친 대통령도 이를 지켜 주겠다고 했음.</li> </ul> <p>[ 엘친 대통령 발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현재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NPT를 탈퇴할 때는 우리와 국경이 너무 가깝다는 점에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북한에 경고하고 이후 제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li> <li>- 朝·러조약에 대해서는 최근에 해석을 새롭게 했고 그전에 있었던 견고한 조항을 완화시켰음.</li> <li>- 北韓 벌목공 문제를 제기 한데 대해 우리 영토에 있는 외국인들이 자의대로 출국할수 있다고 했음</li> </ul> <p>0 金泳三 대통령, 핵문제 해결시 對北 경제지원 용의 * 러시아 上院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북</li> </ul>	<p>없다고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이 우리 나라와 불미한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나 정전협정을 平和協定으로 교체할데 대한 자기의 결의를 이행하는 의미에서나 우리의 제안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간주함.</li> <li>- 핵문제는 사실상 UN이 논할 대상이 아니며 朝·美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li> <li>- 만일 UN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制裁를 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파국적인 후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뻔한 사실임.</li> <li>- UN은 낡은 停戰構造의 기틀로 되고 있는 UN군 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li> </ul> <p>0 『 祖平統 』 서기국, 정부의 韓總聯 전면수사 비난 보도</p> <p>0 『 祖國戰線 』 서기국장 유호준, 민족대회 소집 관련 정치인·각계인사 접촉 촉구 談話</p> <p>0 조선사회민주당 전원회의 개최 (평양)</p>	<p>결의가 채택될 경우 단순한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를 희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데 있음.</li> <li>- 미국은 중국이 對 북한 제재결의안이 표결될 경우 동참하기를 희망함.</li> </ul> <p>0 엘친 러 대통령, 對北 우호조약 2년후 자동폐기 방침 표명 * 러 이타르 타스 통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전쟁발발시 자동적으로 러시아가 北韓을 지원해 개입토록한 러시아와 북한간 조약이 2년후 기한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할 방침임을 金 대통령에게 밝혔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	<p>한의 재건과 개혁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모 든 준비가 되어 있음.</p> <p>0 國防部, 『을지·포커스 렌즈』훈련 8월 통합 실시 발표</p> <p>- 별도로 실시해온 한국단 독의 을지훈련과 韓·美 연합군사훈련인 포커스 렌즈 훈련을 올해부터 재 통합, 오는 8월 하순부터 2주동안 실시함.</p>	<p>* 민족대회 소집 제의 실현을 위한 과업 토의</p> <p>0 金日成, 항일혁명열사 유자녀 일행 접견 및 오찬</p>	<p>0 데니스 박스 美국방 부 대변인, 한반도 상황 매시간 점검 발언</p>
6. 3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 IAEA의 연료봉 추후 계속 불가능 보고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p> <p>&lt; 발표문 要旨 &gt;</p> <p>- 북한 핵문제가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이르렀다 는데 인식을 같이했음.</p> <p>- 북한의 완강한 거부태도 로 우리의 평화적 해결노 력이 중대한 挑戰을 받고 있음.</p> <p>- 국제사회는 제재국면으로 의 수순을 밟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실효성있는</p>	<p>0 美·北회담 북측대표단장 강석 주, 미국의 對北제재 추진 관 련 談話</p> <p>- 우리로서는 과학기술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존해 놓고 있 으므로 朝·美사이의 핵문제 만 해결되면 노심연료의 축정 은 물론 그보다 더한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을것임.</p> <p>- 노심연료교체를 시비하는 것 은 우리 핵활동의 과거를 알 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흑연감 속도체계의 운영을 문제시하 여 우리의 현존 핵동력공업발 전 전반에 제동을 걸려는 기 도이며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 는 정치적 음모의 일환임.</p>	<p>0 갈루치 美국무차관 보, 對北제재조치와 관련 입장 표명</p> <p>- 우리는 북한과 3단 계획담을 개최할 토대가 없어졌다고 판단, UN안보리에 서 추가적인 조치 를 모색할 것임.</p> <p>- 이미 우방 및 안보 리 회원국들과 제 재조치를 포함한 다음 조치를 협의 하기 시작했음.</p> <p>- 우리는 북한의 NPT 완전 준수, 전면적 인 핵안전조치 이</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3	<p>對北제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韓·美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예상되는 제반상황에 대비하여 汎정부적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li> </ul>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 대책 만전 지시 * 李榮德 국무총리에게 전화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UN안보리의 對北경제제재가 구체화되가는 등 긴박한 상황인만큼 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 核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li> </ul> <p>0 金泳三 대통령, 北·러 동맹관계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발언 * 모스크바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친 대통령은 北·러 조약의 기한이 만료되는 2년후에는 경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li> <li>- 조약 폐기후에도 유사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이제와서 朝·美회담의 허울마저 벗어던진다면 우리 역시 외교적 해결책이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li> <li>- 美國이 이제라도 회담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의 一括妥結 제안은 아직 유효함.</li> <li>- 우리는 우리의 核활동의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것이며 지금의 방식대로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음.</li> <li>- 미국이 朝·美회담의 기초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경우 우리가 NPT 탈퇴효력을 임시정지시키고 있는 기초도 허물어지게 될 것임.</li> <li>- 우리는 經濟制裁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된다는데 대해서도 이미 유관국들에게 통지한바 있음. 이 경우 제재에 참가하는 측은 물론 되바침하는 측들도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li> </ul> <p>0 원자력총국 대변인, 일본내 플루토늄 발견 관련 IAEA 비난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가 실험용으로 추출한 극</li> </ul>	<p>행, 특별사찰 수용 남북한 비핵화선언 이행 등을 추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는 고무적인 조치가 될 것임.</li> </ul> <p>0 블리스 IAEA 사무총장, 北과 대화노력 계속 언급 * UN안보리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안전조치협정은 유효한 것으로 생각함.</li> <li>- 북한이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벌이고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li> </ul> <p>0 제11차 非同盟 외상회의(5.31~6.3, 카이로), 『최종선언문』 채택</p> <p>&lt; 韓半島관련 조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공동성명 및 남북기본합의서 원칙에 따른 한국민의</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3	<p>어떠한 동맹관계나 조약도 체결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말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무기와 부품을 앞으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li> <li>-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측으로부터 북한핵에 대한 최고급 비밀을 들었음.</li> </ul>	<p>소량의 신고된 우리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면서 일본의 미신고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적극 두둔할 뿐 아니라 진상을 밝힐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IAEA의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의 적용을 더욱 부각시키며 IAEA의 사명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짙게 해주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는 마땅히 이를 명백히 하고 관리이사회에서 상정토 의해야 하며, 일본의 모든 핵 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사찰조치를 취야 함.</li> </ul> <p>○ 『職總』중앙위원장 주성일, 민족대회 소집 관련 남한 노조 단체들에 접촉제의 談話</p> <p>○ 金日成, 쿠바 여성법률가(로드리게스) 接見</p> <p>○ 정무원 총리 강성산, 라오스 방문 (6.3~6.4) * 양국간 경제협력문제 논의</p>	<p>통일노력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회담을 포함한 당사자간 대화와 IAEA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핵문제 해결 촉구</li> </ul> <p>○ 홍콩 『大公報』紙, 중국 對北경제제재 동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UN이 대북 제재를 실시하면 북한에 대한 식량 및 휘발유 공급과 국경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li> </ul> <p>○ 佛, 對北제재결의안 초안 독자 마련 * UN주재 佛외교관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기초로 사용될 독자적인 제재결의안 초안을 이미 작성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4	<p>0 國務總理 주재 북한핵관련 정부대책 點檢會議 개최</p> <p>&lt; 회의 결과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원 차관 주관의 관계 부처 實務對策班을 가동,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일일점검함.</li> <li>-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 대비해 全軍 경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함.</li> <li>- 對北제재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관계부처가 필요한 준비를 갖추.</li> <li>-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과 앞으로의 핵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함.</li> <li>- 美·日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함.</li> </ul> <p>0 李承坤 남북핵통제공동위 위원장, 강석주 담화 관련 對北聲明</p>	<p>0 駐中 북한대사 주창준, 일본내 플루토늄 발견 관련 IAEA 비난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핵무장화 책동에 대해서는 두둔하면서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에 대해서는 부당한 구실을 붙여 문제시하는 처사는 IAEA 자체의 취지를 엄중히 저버리는 행위임.</li> <li>- 조선반도 핵문제는 반드시 朝·美회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li> <li>-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 어떤 제재조치도 선전포고로 여길 것임.</li> </ul> <p>0 『汎民聯』 해외본부 의장단회의 개최 (도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도발책동 반대 등 4개항의 '결의문' 채택</li> </ul>	<p>0 클린턴 美대통령, 對北제재 불가피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다달았음.</li> <li>-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전쟁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될 것임.</li> </ul> <p>0 日, UN 對北제재 대비 10개항조치 마련</p> <p>* 일본 정부 소식통 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는 UN의 對北경제제재가 실시될 것에 대비, 10개항의 국내 대응조치를 마련했음</li> <li>- 對北제재조치에는 인적교류 규제, 학술 및 문화교류 규제, 상품 및 금융 규제 등 3개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음</li> </ul> <p>0 北, 식량·생필품 대량 주문說</p> <p>* 홍콩소식통</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북한이 5MW 원자로 연료봉교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임.</li> <li>- 북한이 NPT탈퇴를 위협하고 한단계 더높은 핵활동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와 민족전체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우롱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임.</li> <li>-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li> </ul> <p>0 金泳三 대통령, '韓·美, 北을직임 100% 장악' 발언 * 기자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비할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음</li> <li>- 24시간 감시체제를 통해 韓·美 양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100% 장악하고 있음.</li> <li>- 절대로 전쟁은 막아야 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기업들이 쌀, 옥수수, 설탕 등 1백여가지에 이르는 생필품들을 홍콩기업들에 대량으로 주문한 후 6월 초까지 계약체결을 서두르고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4	<p>지만 한·미 양국은 만일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무력을 갖추고 있음.</p> <p>0 韓·美·日, 對北제재결의안 초안 협의 (6.3~4, 뉴욕)</p> <p>* 金三勳 핵담당대사,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야나이 日외무부 외교정책국장</p> <p>&lt; 갈루치 차관보 회담결과 발표 &gt;</p> <p>- 3국은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통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책을 긴급히 검토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음.</p> <p>- 북한의 행동으로 한반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p> <p>0 韓·美·러 정상, 對북한 안보리 제재추진 관련 3角 전화통화</p> <p>0 韓·美 국방장관, 한반도 정세 관련 直通電話</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5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核 단독제재 불사 발언</p> <p>- UN에서 對北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美國은 독자적이거나 우방국들과 연합으로 對北경제제재를 추진할 수도 있음.</p>
6. 6	<p>0 金泳三 대통령, 北 핵모험 강행땐 파멸 경고 * 기자 오찬간담회</p> <p>- 북한의 핵개발은 7천만 민족의 생존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평화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문제임.</p> <p>- 북한이 끝내 무모한 모험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자멸과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임.</p> <p>- 북한핵은 단 한개는 물론 반개라도 허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p> <p>0 UN司, 북한측에 停戰委 비서장회의 개최 제의</p>	<p>0 『祖平統』, 對北제재 추진 관련 대남비난 聲明</p> <p>- 우리는 외세의 이익에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제 정신을 못가진 자들에 의하여 언제 저질러질지 모를 민족적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p> <p>- 이것은 北에 한한 문제도 아니고 南에 한한 문제도 아니며 어느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관한 문제도 아니며, 7천만의 존망에 관한 문제임.</p> <p>-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 도박에서 이득을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함.</p> <p>- 제재는 戰爭이며 전쟁에서는 자비가 없음. 외세와 한쪽이</p>	<p>0 IAEA 정기이사회 개막 (빈)</p> <p>&lt;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gt;</p> <p>- 추가적 장소와 정보에 대한 접근, 특히 寧邊 핵폐기물 저장관련 2개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거부에 더해진 일방적인 원자로 노심 교체로 인해 IAEA는 北韓의 핵물질 전용여부, 다시말해 핵안전협정의 전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p> <p>- 현단계에서 北韓의 핵물질 전용여부를</p>



날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군의 일방적인 군사 정전위원회 철수와 관련,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서장회의 개최 제의</li> <li>- 북한군의 일방적인 군사 정전위원회 철수와 관련,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서장회의 개최 제의</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中 제재 거부 명분없다고 발언</li> <li>- 북한을 제재하는데 中國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임.</li> <li>- 안보리에서 對北제재안이 나오면 그것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나오는 것이므로 中國도 저지할 명분이 없을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되어 동족에 대한 제재판을 벌여놓고도 자기만은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임.</li> <li>○ 원자력총국장 박용남, IAEA의 연료봉 추후 계속 불가능 결론 관련 블릭스 사무총장에 便紙</li> <li>- UN안보리와 관리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에 연료봉의 차후 측정은 실제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정치적 편견을 앞세우면서 핵문제의 공정한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li> <li>- IAEA 서기국이 사찰의 미명하에 우리의 군사대상을 하나하나 개방해 보려는 美國의 對조선 적대시정책에 계속 편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li> <li>- 지난시기 IAEA의 부당한 처사가 우리로 하여금 NPT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를 빚어내게 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음.</li> <li>- 우리가 IAEA 서기국과 더이상 상종해야 핵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더욱더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핵안전조치 관련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임.</li> <li>○ 中 외교부 대변인, 러 제의 北核 '多者會議' 검토 언급</li> <li>- 중국은 북한핵문제 관련, 남북한과 미국, IAEA 등 4개 당사자간 대화가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토대인 것으로 믿고 있음.</li> <li>- 중국은 러시아가 요구한 다자간 회담 개최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임</li> <li>○ 安保理 4개국, 對北 제재 원칙적 합의</li> <li>* 워싱턴 포스트紙</li> <li>- 상임이사국중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은 북한에 대해 制裁 조치를 취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음.</li> <li>- 그러나 북한이 NPT</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서기국이 불공정성을 확대하면서 UN에 끌고가 압력 일면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는 IAEA의 부당한 구속을 받을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平和的 核活動의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임.</li> <li>○ 외교부장 김영남, 러 제의 多者간 국제회의 검토 언급 (키예프)</li> <li>- 우리는 러시아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檢討하고 있음.</li> <li>○ 『社勞靑』 중앙위원장 최용해, 민족대회 소집 관련 남한의 청년 및 청년학생단체에 접촉 제의 談話</li> <li>○ 조선소년단 제5차 대회 (6.6~7)</li> <li>○ 北韓 군사대표단, 중국 방문 (6.6~6.13)</li> <li>* 단장: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부터 脫退할 정도로 밀어붙이지는 않기로 의견을 모았음.</li> <li>○ 허바드 美 국무부 부차관보, 對北제재 방안 언급</li> <li>* 아시아협회 연설</li> <li>- 클린턴 美 행정부는 다양한 제재방안에 대한 윤곽을 잡아 왔음.</li> <li>- 制裁方案중에는 무기금수, 평화적 핵 협력 차단, 국제공조와 금융지원의 금지, 원유 및 에너지 금수, 전면적인 무역금지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li> <li>- 미국은 현재 對北 제재를 점진적으로 할 지 아니면 사전 예고기간을 줄지에 대해 내부협의중임</li> <li>- 북한이 과거에 추출한 플루토늄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국제사찰 의무</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6			<p>를 준수한다면 미국은 對話를 계속할 용의가 있음.</p> <p>0 日 경찰, 『朝總聯』 교토본부 및 사무실 일제 수색</p>
6. 7	<p>0 金泳三 대통령, '4角외교의 틀' 완성 천명 * 러시아 방문후 歸國인사</p> <p>- 러시아가 北韓에 대한 무기판매중단과 상호원조조약의 사실상 폐기를 밝힌 것은 우리 안보의 새로운 기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임.</p> <p>-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시 국제적 제재에 동참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確約했음.</p> <p>-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동북아 평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4角외교의 틀을 완성한 것임.</p> <p>0 金泳三 대통령, 북한에 핵개발 포기 촉구 * 『民主平統』제6차 지역</p>	<p>0 외교부 대변인, 특별사찰 거부 재천명 記者會見</p> <p>- 노심연료 측정문제와 관련한 절충을 거부하고 3단계 회담의 기초를 깨버린 것은 우리가 아니라 美國임.</p> <p>- 미국이 우리의 방법을 무시하고 노심연료의 측정가능성이 파괴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순수 특별사찰 실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데 속심이 있었음.</p> <p>- 특별사찰의 강요는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反공화국 압살정책의 집약적 표현임.</p> <p>-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은 애초에 꿈도 꾸지 말아야 함.</p> <p>0 빈주재 참사관 윤호진, IAEA 특별사찰 결의시 NPT탈퇴 경고</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北核 관련 선제폭격 가능성 배제 시사 * NBC방송 회견</p> <p>- 우리는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어떤 것을 배제하거나 하는 입장이 아님.</p> <p>- (선제폭격을 포함해) 어떠한 선택도 배제하지 않음.</p> <p>0 錢其琛 中외교부장, 北核 대화해결 주장 * 몰타 총리 면담시</p> <p>- 제재는 문제해결의 좋은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을 격화시키게 됨.</p> <p>- 중국은 조선의 핵문제가 3角 4軸의 범위내에서 담판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7	<p>회의 개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도 북한은 세계 대체에 순응하여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길로 나서야 할 것임.</li> <li>-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고립과 멸망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단언해 둬.</li> <li>-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하지만 幻想的 통일론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없음.</li> </ul> <p>○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어떤 대가 치러도 체제 수호' 발언</p> <p>* 『民主平統』제6차 지역 회의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에 동참, 단계적인 압력을 가해나갈 것임</li> <li>-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으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자유와 체제를 지켜나갈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이사회가 또다시 특별사찰을 결의하면 NPT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li> <li>○ 『文藝總』의장 백인준, 민족대회 소집관련 남한 문학예술단체들과 접촉제의 談話</li> <li>○ 李仁模,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 함세환에게 송환투쟁 적극 전개 촉구 便紙</li> <li>○ 金日成, 『朝總聯』의장 한덕수 접견</li> </ul>	<p>통해 해결되기를 바람.</p> <p>○ 코지레프 러 외무장관, 서방의 일방적 對北제재 反對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조치만큼은 아직 UN안보리만이 취하거나 거둘 수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8	<p>0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 UN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른 군사적·경제적 대비태세 점검</p> <p>&lt;金泳三 대통령 발언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의 핵투명성 뿐만 아니라 과거의 핵활동도 철저히 규명돼야 함.</li> <li>- 북한은 이번에 UN안보리의 制裁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봄.</li> <li>- 예상상황과 정세의 변화에 대해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민들도 안보의식을 새롭게 할 때 임.</li> </ul> <p>0 金泳三 대통령, 對北제재 후 남북대화 추진 방침 * 3府요인 및 여야대표 초청 오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제재는 UN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li> <li>- 우리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남북대화는 UN 안보리의 制裁결정이 있는 뒤에나 가능할 것임.</li> </ul>	<p>0 외교부장 김영남, 對美 협상 재개 용의 표명 * 기자회견 (키예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朝·美 협상이 재개된다면 우리의 핵시설에서 핵연료봉의 실험과 측정, 보존 등의 사찰을 보장하겠음.</li> <li>- 미국과 朝鮮은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음.</li> <li>- 우리는 今世紀 말까지 조선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임.</li> <li>- 조선반도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의도는 없으며, 단일 국가에 기초를 둔 두개 제도 두개 정부 공존이라는 聯邦制 통일을 지지함.</li> </ul> <p>0 駐러대사 손성필, 대북제재 지지 선전포고 간주 警告 * 러시아연방 공산당 출신 국가회의 대의원과 친선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에게 위협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朝鮮半島의 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li> <li>- 2개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이란 말도 되지 않으며 그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함.</li> </ul>	<p>0 美 국무부,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 제의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폐기물 시설에 대한 IAEA 접근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 같음.</li> <li>-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으나 대화의 근거를 구축하는 문제는 북한에 달려 있으며 김영남의 발언은 이에 훨씬 모자람.</li> </ul> <p>0 키드 IAEA 대변인, 北 연료봉 교체완료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연료 제거가 사실상 끝났음. 핵연료의 과거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었음.</li> </ul> <p>0 美, 일본에 對北송금 금지 요청 * 야나이 日외무성 외교정책국장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對北제재의</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8	<p>0 金泳三 대통령, '北핵개발 계속은 우리의 비핵화공동선언 준수노력 중대도전' 발언</p> <p>* 한국일보 창간 40주년 특별회견</p> <p>- 북한이 끝내 핵개발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韓半島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노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제재 3原則 언급</p> <p>* 기자간담회</p> <p>- 북한에 대한 制裁는 신속하게 착수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실효성있게 단행되어야 한다는 3가지 原則을 세우고 있음.</p> <p>0 韓·러 정상, 對北제재 전회협의</p> <p>- 對北제재가 UN제재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p>	<p>- 制裁에 가담하는 측이나 제재를 지지하는 측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전포고로 인정할 것임.</p> <p>0 김인서 누이동생들, 김인서·함세환 송환추진본부 등 남한 4개단체에 송환협조 便紙</p> <p>0 『법정학련』북측본부, 정부의 韓總聯 수사 관련 비난 聲明</p>	<p>일환으로 일본에 朝總聯계 재일동포들의 對북한 은행 송금이나 현금증여를 금지하도록 요구했음.</p> <p>- 일본은 이에 따라 對북한 현금송금을 차단할 각오이지만 즉각적인 제재에는 찬성하지 않음.</p> <p>0 美하원, 한반도 군사력 증강촉구 수정안 통과</p> <p>- 美하원은 北核관련 한반도의 군사력을 보강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95 회계년도 美국방수권법 修正案을 통과</p> <p>- 수정안은 美국방장관에게 12.1이전에 한반도 군사력강화 방안을 議會에 보고토록 요구</p> <p>0 北, 남예멘에 전투기·미사일 제공說</p> <p>* 살레 북예멘대통령 언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8	<p>○ 韓·美 고위군사회의 (국방부) * 李炳台 국방장관, 게리 렉 한미연합사령관 참석</p> <p>- 北核 관련 韓·美 연합대 응체제 강화방안 협의</p>		<p>- 북한과 남예멘이 미그 29기와 상당 수의 T-82 탱크, 전술미사일 인도협정을 체결했다는 확증을 얻었음.</p>
6. 9	<p>○ 金泳三 대통령, 하타 신임 日총리와 전화통화</p> <p>- 하타 총리는 韓·美양국과 긴밀히 협조, 안보리 제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p> <p>○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경고절차 없이 제재 결의안 추진 언급 * 日아사히신문 會見</p> <p>-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핵연료봉을 일방적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계속 경고해 왔음. 경고 결의안 단계는 이미 지났음.</p> <p>- 제재내용에는 朝總聯의 송금, 중국의 원유와 식량의 禁輸는 최소한 중간 단계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임.</p>	<p>○ 외교부, 일본 경찰의 『朝總聯』 사무실 수색 관련 聲明</p> <p>- 이것은 일본 당국이 미국에 편승하여 조작한 계획적인 反공화국 책동의 일환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됨.</p> <p>- 일본이 우리에게 대한 그 어떤 제재에 앞장서든 끌려가든 그에 합류해 나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日本은 응당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임.</p> <p>- 日本 당국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폭압소동을 당장 중지하고 사죄하며 사건 주도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함.</p> <p>○ 金日成, 미국과 '일괄타결' 뎀 핵개발 중단 용의 표명 * 셸리그 해리슨 美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 접견 (6.11字 교도통신)</p>	<p>○ IAEA 18개 이사국, 對北제재案 사무국 제출</p> <p>- 美·日·러등 IAEA 18개 주요 이사국들은 독자적 제재 조치와 사실상의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決議案을 사무국에 제출</p> <p>○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對北 제재결의 표결시 中國 지지 희망 * 美하원 외교위 東亞태소위 증언</p> <p>- 美國 정부는 UN안보리의 對북한 제재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中國의 지지가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제재안은 빠르면 내주, 늦어도 3~4주내에는 安保理에 상정·채택하지 않으면 안됨.</li> <li>- 북한은 IAEA가 요구하는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고, 원자로 운전상황 日誌 등의 자료제출이 불가결함.</li> <li>- 만약 북한의 재처리 활동 등 핵무기 개발로 인해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효화될 경우 우리도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수 없음</li> </ul> <p>○ 韓·中 외무장관회담 (북경)</p> <p>&lt; 韓昇洲 외무장관 귀국 기자회견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이 制裁결의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님.</li> <li>- 앞으로 中國의 태도는 북한이 IAEA의 의무준수 여부에 달려있다고 봄.</li> <li>- 북한 핵문제에 해결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대화에 의해 국교정상화 등이 一括妥結되고 경수로 전환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면 현재의 원자력개발계획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li> <li>- 만약 美國과 다른 나라로부터 경수로를 공여하겠다는 확약을 받으면 방사화학연구소와 현재 건설중인 20만KW 원자로 개발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li> <li>- 한국에서의 공산주의혁명은 불가능함. 한국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나라가 투자하고 있어서 많은 적을 만드는 것이 됨. 우리는 이미 하나의 적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적을 확대하고 싶지 않음.</li> </ul> <p>○ 외교부장 김영남, 전쟁발발시 南韓 초토화 위협</p> <p>* 로이터통신 회견(키예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이 미국의 제재 강행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조선은 황폐화할 것임을 상기해야 함.</li> </ul> <p>○ 外交部 대변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비난 記者會見</p> <p>○ 『6.10 만세시위투쟁』68돌 기념 평양시보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核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합당한 대화의 토대가 다시 구축되기까지는 북한과 對話를 하지 않을 것임.</li> <li>- 필요하다면 UN안보리 밖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li> </ul> <p>○ 파노프 러 외무차관 現단계 북한제재 반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는 現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지않음</li> <li>- 북한이 현재 러시아가 제안한 國際會議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동임.</li> </ul> <p>○ 카라신 러 외무부 대변인, 北核 정치적 해결 착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는 北核문제로 최근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9	<p>○ 李炳台 국방부장관, 북한 도발 대비태세 완비 발언 * 국회 국방위 답변</p> <p>- 局地戰이든 全面戰이든 어떠한 유형의 북한 도발 에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단계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p>		<p>치적 방법으로 풀기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임.</p> <p>- 이에는 일정기한내 북한의 IAEA 사찰 허용 보장·한반도 안보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國際會議 소집이 포함됨.</p>
6. 10	<p>○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韓昇洲 외무장관의 러·중·UN 순방결과 보고 및 對北제재결의안 논의</p> <p>&lt; 발표문 요지 &gt;</p> <p>- 정부는 미국 등 관계국들과 협의를 거쳐 UN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음.</p> <p>- 정부의 기본입장은 △ 모든 노력은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궁극적 목표가 있으며 △ 매 단계별 모든 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것임.</p>	<p>○ 빈주재 북한대표 윤호진, IAEA 제재 決議案 채택 관련 회견</p> <p>- IAEA와는 이제 끝임. 美國의 방향과 논리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IAEA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음.</p> <p>- IAEA를 脫退하지는 않으나 이번 결의는 나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임.</p> <p>-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것은 平壤에서 결정할 것임.</p> <p>○ 外交部長 김영남, 미국에 協商 호응 촉구 * 베를린 記者會見</p> <p>- 우리 나라는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p>	<p>○ IAEA 이사회, 對北 제재 決議案 채택</p> <p>- 北韓이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에 대한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의 핵심적 요소를 이행치 않은 것을 개탄함.</p> <p>- 북한이, IAEA가 원자로 노심의 역사를 검증하고 지난 수년간 원자로로부터 核物質이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안전조치협정 불이행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함.</p> <p>- 북한은, 특히 모든</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0	<p>0 韓·美 정상, 北核 안보리 제재 거듭 확인 * 전화통화</p> <p>- 현시점에서 北韓 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UN안보리의 對北 제재라는데 의견일치</p> <p>- 韓·美·日 3국이 공조체제를 긴밀하고 폭넓게 함으로써 안보리 制裁가 성사되도록 노력키로 합의</p> <p>0 金泳三 대통령, 북한 핵무기 개발은 파멸 초래 警告 * 전쟁기념관 개관식 치사</p> <p>-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기 파멸을 초래하는 최대 과오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p> <p>-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40여년전의 반민족적 행위를 겸허히 반성하고 역사앞에 사죄해야 할 것임</p> <p>0 金泳三 대통령, 정부 對北 정책 혼선없다고 발언 * 민자당·국회 간부 만찬</p> <p>- 일부에서 정부가 南北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한다고 하나, 가장 중요한 것</p>	<p>그 어떤 制裁조치도 우리를 놀래우지 못함.</p> <p>- 美國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담에 응당 관심을 가지고 응해야 함.</p> <p>- 미국이 압력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조선반도의 긴장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처신해야 함.</p> <p>-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統一을 이룩할 것임.</p> <p>0 『農勤盟』중앙위원장 최성숙, 민족대회 소립 관련 남한 농민단체들과 接觸 제의 談話</p>	<p>안전조치관련 情報와 場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IAEA 사무국에 대하여 즉각 충분한 협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p> <p>- 憲章 제12조 c항의 규정에 따라 IAEA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료를 제외한 지원을 중지할 것을 결정함.</p> <p>* 찬성 28, 반대 1 (리비아), 기권 4 (중국·인도·레바논·시리아)</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러 8者회담 제의 수용 시사 * 美·러 외무장관 회담</p> <p>- 美國은 북한에 대한 UN 결의의 하나로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한 國際會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0	<p>은 韓半島에서 전쟁을 없게 하는 방법을 찾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北韓 태도에 따라 대응하는 것임.</p> <p>○ 韓昇洲 외무부장관, 北 플루토늄 추출 核彈 1개 제조 가능 언급 * 국회 외무통일위</p> <p>- IAEA 사찰을 근거로 北韓이 최소한 1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政府의 공식판단임.</p>		<p>○ 카터 美국방차관보, 北 核공격 시나리오 검토 착수 발언</p> <p>- 미국은 韓半島일대에서 정보수집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대량 살육무기를 사용하는 사태를 중시,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分析하고 있음.</p> <p>○ 中國, 지하 核실험 실시</p>
6.11	<p>○ 외무부 대변인, IAEA 이사회 對北결의안 채택 관련 聲明</p> <p>- IAEA 이사회가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歡迎함.</p> <p>- 북한은 이 결의를 준수하여 과거의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앞으로의 核투명성도 완전히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p> <p>- 정부는 UN 안보리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p>	<p>○ 인민軍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UN司의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 개최 제의 관련 談話</p> <p>- 미국측은 저들끼리 회의장에 나타나 준비된 발언문을 읽고 우리측의 행동이 정전협정의 위반으로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였음.</p> <p>- 미국측의 이러한 행동은 정전협정과 정전기구를 체계적으로 파괴말살해온 저들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가소로운 연극에 불과함.</p> <p>- 미국측에 의하여 무력증강도 전쟁재발도 막을 수 없게 된</p>	<p>○ 키드 IAEA 대변인, 사찰요원 2명 北韓 체류 확인</p> <p>- 모든 것이 정상이며 이들이 반드시 북한을 떠나야 할 조짐이 없음.</p> <p>○ 타노프 美국무차관, 8者회담보다 制裁 우선 확인 * 離韓기자회견</p> <p>- 미국은 러시아가 제안한 8者회담보다는 안보리 制裁案 마련이 더 우선</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1	<p>을 강구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北韓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임</p> <p>○ 外務部, 중국 핵실험 실시 관련 유감 論評</p> <p>- 현재 주요 核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자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中國이 다시 핵실험을 행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p> <p>- 정부는 포괄적핵실험금지條約(CTBT)의 조기타결을 위해 모든 核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자제할 것과 非擴散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함.</p> <p>○ 韓昇洲 外무부장관, 타노프 美 국무차관·가키자와 日 外무장관과 연쇄 會談 (서울)</p> <p>- 현 상황에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UN 안보리의 制裁밖에 없으며 제재결의에는 北韓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기도록 한다는데 의견일치</p>	<p>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무엇에 필요한가?</p> <p>- 미국측은 停戰機構를 되살리려하기 보다는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는데로 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임.</p> <p>○ 金日成, 러시아 국경절 즈음 엘친 대통령에게 祝電</p> <p>-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관계가 자주·평등·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發展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함.</p> <p>○ 外交部長 김영남, 귀국 * 5.31~6.11 카이로, 키예프, 베를린 방문</p>	<p>적이라는 입장임.</p> <p>○ 하타 日총리, 對北 군사적 제재 불참 표명</p> <p>- 무력행사를 포함한 군사적 조치는 헌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함.</p> <p>○ 日, 對北송금 年 20 억불중 제재때 70% 차단 가능 * 日교도통신</p> <p>- 북한은 매년 GNP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억달러의 현금을 日本으로부터 송금받고 있으며, 日정부는 이중 60~70%를 금지시킬 수 있음.</p> <p>○ 월폴 美CIA 핵불확산센터 부소장, 北 플루토늄 年 65kg 생산 가능 추정</p> <p>- 북한의 재처리공정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면 연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1			<p>약65kg의 플루토늄 생산 추정</p>
6.12		<p>○ 중앙통신, 남예멘 무기공급說 부인</p> <p>- 터무니 없는 조작으로, 그같은 보도가 북한 핵문제의 심각한 국면과 때를 맞춰 나왔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하지 않음.</p> <p>○ 『汎民聯』북측본부, 일본경찰의 朝總聯 사무실 수색 규탄 聲明</p>	<p>○ 뉴욕 타임스紙, 美 온건한 制裁결의안 추진 보도</p> <p>-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단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원칙하에 결의안 초안의 대강을 마련, 이번주초 UN 안보리에 상정할 예정임.</p> <p>-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UN 기술지원 금지, 과학·문화 교류 중단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원유공급 중단, 일본의 송금 차단과 같은 강경한 경제 제재조치는 포함되지 않음.</p>
6.13	<p>○ 국무총리 주재 中央民防衛 協議會 개최</p> <p>* 북한核 상황과 관련 국민 안보의식고취 및 민방위 대책 협의</p> <p>○ 金泳三 대통령, 북한 태도</p>	<p>○ 外交部 대변인, IAEA 탈퇴 聲明</p> <p>- 북한 외교부는 IAEA가 우리에게 대해 부당한 제재를 가하고 더욱이 우리의 군사대상물에 까지 끝내 침입하려고 책동하</p>	<p>○ 마이어스 美 백안관 대변인, 北 IAEA 탈퇴 성명 관련 論評</p> <p>- 탈퇴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매우 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3	<p>에 따른 신축적 대응 언급</p> <p>* 韓·日의원연맹 일본측 대표단 접견</p> <p>- 북한핵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아래 北韓의 태도에 따라 신축성을 갖고 대응한다는 것임.</p> <p>-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UN 安保理 북한 핵문제 토의에서 우리 목표가 단계적으로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봄.</p> <p>0 金惠 안기부장, 北 초보적 핵무기 개발 임박 언급</p> <p>* 국회 국방위원회</p> <p>- 북한은 지금쯤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p> <p>-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p> <p>0 宋榮大 통일원차관, 北 핵연료봉 재처리 새카드화 의도 발언</p>	<p>고 있는데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천명함.</p> <p>- 첫째, IAEA로부터 즉시 脫退함</p> <p>· 지금까지 우리 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진 IAEA의 모든 부당한 決議들을 무효로 인정하며 금후 IAEA의 그 어떤 규정이나 결정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임.</p> <p>- 둘째, 우리의 特殊地位下에서 받아오던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査察을 더이상 지금처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함.</p> <p>· 우리가 NPT에 복귀하는가 완전히 탈퇴하는가가 판가름날 때까지 그 어떤 부당한 사찰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p> <p>· 이로부터 IAEA 査察員들도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할 일이 없게 될 것임.</p> <p>- 셋째, UN 制裁는 곧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재확인함.</p> <p>· 적대세력의 제재조치의 확대에 自衛的 措置의 확대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임</p>	<p>정적 사태발전임.</p> <p>*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논평</p> <p>- 이는 對북한 제재 결의안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가 이를 수락하도록 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임.</p> <p>0 카터 前 美 대통령, 북한 방문차 서울 도착</p> <p>0 클린턴 美 대통령, 中·러 정상에게 北 제재 협조 요청</p> <p>* 마이애스 백악관 대변인 확인</p> <p>0 케리 美 상원의원, 美·北韓 막후접촉 시사</p> <p>* CNN방송 대담</p> <p>- 美國과 北韓은 현재의 핵위기 타개를 모색하기 위해 양측 관리들간의 접촉을 갖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3	<p>* 민자당 평화통일위원회</p> <p>- 북한이 연료봉을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은 앞으로 폐연료봉 재처리를 새로운 핵카드로 개발하기 위한 의도임.</p> <p>-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함.</p>	<p>- 우리의 이와같은 입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임.</p> <p>○ 外交部長 김영남, IAEA 탈퇴 결정 美國에 공식 통보</p> <p>- IAEA가 부당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엄중하게 침해하였으며 우리와 IAEA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한데 대해 상기시키는 바임.</p> <p>- IAEA규약 제18조 ㄱ항에 따라 '94.6.13부로 IAEA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당신을 통하여 기탁국인 미합중국 정부에 알리는 바임.</p> <p>○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일본 경찰의 朝總聯 사무실 수색 규탄 聲明</p>	
6.14	<p>○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lt; 부총리 발표문 요지 &gt;</p> <p>- 북한이 IAEA 탈퇴를 결정한 것은 이미 심각한 북한 핵문제를 더욱 어렵게</p>	<p>○ 김양건 黨국제부 부부장, 美國과 대화 재개 희망</p> <p>* 日사회당 대표단 면담</p> <p>- 우리는 IAEA 탈퇴가 朝·美간의 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도 우리는 朝·美간의 대</p>	<p>○ IAEA, 北 IAEA 탈퇴 선언 관련 聲明</p> <p>- 회원국이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는 IAEA회원 자격과는 별개의 문제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4	<p>만드는 것으로서, 정부는 깊은 憂慮를 표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PT체제가 요구하는 모든 안전조치에 지금이라도 협조할 것을 北韓에 강력히 촉구함.</li> <li>- 제재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核투명성 보장을 위한 긍정적 입장으로 회귀하여 對話에 응하도록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li> <li>-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확고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li> </ul> <p>○ 外務部 대변인, 北韓 IAEA 탈퇴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를 탈퇴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 대해 심각한 憂慮를 표명함.</li> <li>-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는데 대해 警告함.</li> <li>-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서 IAEA의 모든 査察을 수락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함.</li> </ul>	<p>화 재개를 위해 노력중임.</p> <p>○ 노동신문, 한반도 비핵화 위한 '포괄적 核위협 제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에서의 미국의 핵무기 철폐 및 핵위협 제거는 이 지역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관건적인 고리로 되며 일본의 핵무장화 종식은 비핵화 실현의 절실한 요구임.</li> <li>- 미국·일본 및 남조선측의 核위협은 시대 흐름에 배치되므로 포괄적으로 제거되어야 함</li> </ul> <p>○ 『汎靑學聯』북측본부 대변인, 일본경찰의 『朝總聯』사무실 수색 관련 규탄 聲明</p> <p>○ 일본의 『朝總聯』탄압 규탄 평양시 군중집회 (모란봉 청년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현재까지도 법률적으로 안전조치협정에 기속되어 있음.</li> </ul> <p>○ 옐친 러 대통령, 北 NPT 탈퇴면 제재 동의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NPT 탈퇴를 강행하려 한다면 러시아는 이와 관련한 國際會議을 긴급히 소집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단계적 制裁를 가하는데 동의할 것임.</li> </ul> <p>○ 日외무성 대변인, 北 IAEA 탈퇴선언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IAEA 탈퇴 및 사찰거부를 재고하도록 요구함.</li> </ul> <p>○ 김일성 차남 金平一 軍 요직 기용설 * 北京 서방소식통</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UN 안보리에서 對북한 제재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더욱 확고해질 것임.</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고수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信기자회견</li> </ul> </li> <li>- 북한이 核武器 개발에 계속 집착한다해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끝까지 준수하고 국제적인 核 비확산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li> <li>○ 李基澤 민주당 대표, 北核 정부특사로 訪北용의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記者會見</li> </ul> </li> <li>- UN결의에 의한 제재는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일부 국가간의 제재방식은 반대함.</li> <li>- 만일 정부가 나의 뜻을 받아들이고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갈 수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5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對北 제재결의안 논의</p> <p>0 金泳三 대통령, 유사시 北 격퇴능력 충분 발언 * 금융계인사 오찬</p> <p>-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는 없으며 정부는 유사시 이를 격퇴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p> <p>0 民自黨, 非核化 공동선언 재검토 촉구 決議文 채택</p> <p>- 북한이 UN안보리 제재 이후에도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때는 정부는 韓半島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검토하는 등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p>	<p>0 外交部長 김영남, 카터 일행 위해 宴會 마련(목란관)</p> <p>&lt; 김영남 연설 요지 &gt;</p> <p>- 이번 방문이 두나라 사이에 증폭되고 있는 불신과 적대감을 선린과 우호, 호상존중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믿고 싶음.</p> <p>- 美國이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현명하게 대한다면 핵문제를 비롯한 朝·美사이의 여러 현안문제들도 원만히 풀리게 될 것임.</p> <p>&lt; 카터 연설 요지 &gt;</p> <p>- 두나라가 완전한 친선과 이해무역, 인사교류를 비롯한 전면적인 관계를 수립할 때가 되었음.</p> <p>- 이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응당 북한과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음.</p> <p>- 핵문제가 해결되고 오해가 해소된다면 분명히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도 전진을 이룩할 수 있음.</p>	<p>0 카터 前 美대통령, 판문점 통해 訪北</p> <p>0 美,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對北제재결의안 협의 착수</p> <p>&lt; 결의안草案 요지 &gt;</p> <p>-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북한에 NPT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단계에 걸친 제재조치 발동</p> <p>- 1단계 조치로는 △핵관련 기술·과학협력 중단△비정기 항공기 이착륙 금지 △UN 경제원조 중단 △상호원조조약 효력중단 △북한 외교관 인원감축 △강제적 무기금수 △문화·교육 등 분야 교류 금지 포함</p> <p>- 북한이 IAEA 핵안전협정 의무 이행시 한반도에 관한 '國際安保會議' 개최할 용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5		<p>0 勞動新聞, 美·러의 국제회의 추진 합의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국제회의를 한다는 것은 말도되지 않음.</li> <li>- 우리가 國際會議 제안에 일정하게 관심을 표시하게 된 것은 朝·美회담이 결렬된 지금 그것이 핵문제를 포함한 조선반도 문제를 協商을 통해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로부터 출발한 것임.</li> <li>- 우리는 國際會議를 우리에게 대한 압력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임.</li> <li>-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지만 우리에게 대한 압력과 제재에는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li> </ul> <p>0 파리주재 北韓대사 박동춘, 美·北 주한미군 철수 비밀 합의 발언 * 佛 리베라시옹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지난 2월 북한과 체결한 '비밀' 협정에 따라 駐韓 美軍 철수원칙을 수락했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NPT 탈퇴, 재처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해외자산 동결, 대북송금 금지 등 추가조치</li> </ul> <p>0 IAEA, 北탈퇴 공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현장 수탁국인 미국은 6.13자로 북한의 IAEA 탈퇴 결정을 통보한 北韓 외교부장 명의의 서한을 같은 날 짜로 IAEA에 전달했음.</li> </ul> <p>0 日, 美 대북 제재결의안 草案 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타 日총리 주재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을 검토, 원칙적 수용의사를 美 정부에 전달</li> </ul>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北 IAEA 사찰원 감시활동 계속 허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잔류팀은 현재</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조선기독교도연맹·천도교인 협회, 일본의 『朝總聯』탄압 규탄 聲明</li> <li>0 북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 (평양)</li> </ul>	<p>현장에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스테파신 러 방첩본부장, 핵부품 구입 시도 북한인 5명 추방 발언</li> <li>* 인테르 팩스 통신</li> <li>- 러시아는 최근 핵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을 구입하려한 북한인 5명을 추방했음.</li> </ul>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政府, 미국의 UN안보리 제재 결의안 草案 승인</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발표</li> <li>- 정부는 6.15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草案을 검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안보리 토의에 회부토록 재가를 받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金日成·카터 회담 (주석궁)</li> <li>* 경수로 지원조건 핵개발 동결용의 표명</li> <li>&lt; 카터 CNN방송 회견요지 &gt;</li> <li>- 국제사회가 輕水爐 건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기술을 제공하면 현재의 핵開發을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음.</li> <li>-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IAEA 사찰팀의 체류와 寧邊 원자로 핵연료봉 교체 입회를 계속 허용하며 IAEA 감시장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클린턴 美 대통령, 美·北회담 재개 의사 표명</li> <li>* 특별성명</li> <li>- 북한의 제안이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킨다는 뜻을 담고있는 것이라면 이는 기대할만한 발전임.</li> <li>- 협상은 북한이 IAEA와 협력하고 더이상 국제 핵안전을 해치지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할 것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6		<p>- 북한은 NPT를 脱退한 바 없으며 장래에도 이같은 조약국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p> <p>0 金正日 노동당사업 시작 30돌 기념 전국토론회 개최 (2.8문화회관)</p> <p>* 참석 : 이종옥, 최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최영립, 양형섭, 백학립 외</p>	<p>- 北韓이 진지하고 실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 재개와 함께 기존의 核 프로그램 동결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高位級會談을 재개할 수 있음</p> <p>- 물론 이러한 가운데 UN에서 制裁에 관한 협의는 계속 추진할 것임.</p> <p>0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北 핵개발 동결 환영 聲明</p> <p>- 미국은 북한의 의사가 건설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歡迎함.</p> <p>- 적절한 여건만 조성된다면 언제라도 3단계會談에 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음.</p> <p>- 북한이 △IAEA 사찰팀·사찰장비의 체재 허용△경수로 지원시 기존원자로의 대체△NPT의 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6			<p>수와 IAEA안전조치 이행 등에 관해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 것에 주목함.</p> <p>※ 기자 질문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오늘의 메시지가 재처리 유보, 연료봉 재장전 유보, 핵안전조치 연속성 유지 등을 뜻한다면 3단계회담 재개를 위한 적절한 근거로 볼 수 있음.</li> </ul> <p>○ 키드 IAEA 대변인, 北 IAEA사찰단 잔류 허용 관련 언급</p> <p>* CNN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우리에게 단지 사찰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일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님.</li> </ul> <p>○ 沈國放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전쟁시 자동개입 의무 없다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에서 전쟁발</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6			<p>발시 중국은 이 전쟁에 자동개입할 의무가 없음.</p> <p>- '61년 체결된 中·朝 우호협력조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이 조약에 한반도 전쟁시 자동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p> <p>○ 코지레프 러 외무장관, 美 제재결의안 초안 지지 거부</p> <p>-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결의안 초안을 지지하지 않을것임</p> <p>○ 美상원, 駐韓미군 증강 촉구 결의안 채택</p>
6.17	<p>○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 발표문 요지 〉</p> <p>- 정부는 카터 前 美대통령 訪北을 계기로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韓·美 외무장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 진전을 주시하고 있음.</p>	<p>○ 金日成·카터 2차회담 (김일성 전용 요트)</p> <p>〈 美CNN 방송 보도 내용 〉</p> <p>- 金日成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p> <p>- 또한 한국戰 당시의 실종美軍 유해 수색작업을 위해 美·北</p>	<p>※ 카터 訪北 日程</p> <p>- 6.15 외교부장 김영남 주최 만찬</p> <p>- 6.16 金日成과 회담</p> <p>”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와 의견 교환</p> <p>” 민속무용 공연 관람</p> <p>” 제일백화점,</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7	<p>-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北韓의 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없을 경우에 대비한 UN 안보리의 對北 제재결의안 채택도 계속 추진할 것임.</p>	<p>韓 합동팀을 만들 것을 제안했음.</p> <p>- 카터는 클린턴 美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制裁조치를 가하려는 노력을 중단했다고 말했음</p> <p>- 클린턴 행정부가 北韓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음.</p> <p>- 워싱턴 당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不使用 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말했음</p> <p>- 북한측이 원하는 경수로 원자로의 교체를 美國이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음.</p> <p>○ 黨중앙위 후보위원 ·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李基澤 민주당 대표 訪北 환영 談話</p> <p>-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된 침체한 정세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각계인사들이 속속 平壤을 방문하고 있는 때에 남조선 야당 대표가 방문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p> <p>- 이기택 대표가 특사의 자격으로라도 평양을 방문할 의사를 표명한 것은 민족자주정신의 발현으로 된다고 생각함.</p>	<p>옥류관 참관</p> <p>- 6.17 金日成과 회담 ” 서해갑문 참관 * 김일성 부부 동행 ” 학생소년궁전, 만수대창작사, 평양 지하철도 참관</p> <p>- 6.18 판문점 통과 귀환</p> <p>○ 마이어스 美 백악관 대변인, 對北제재 추진 중단 否認</p> <p>- 우리는 제재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음.</p> <p>○ 키드 IAEA 대변인, 北 核안전의무 이행 판단 시기상조 발언</p> <p>- 북한이 核안전의무를 이행할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아직 이룸.</p> <p>-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으며 앞으로 며칠 내에 그 내용이 밝혀져야 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이기택 대표의 평양 방문이 민주당 대표의 자격으로 실현되어도 좋고 어떤 특사의 자격으로 실현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함.</li> <li>- 이기택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면 기꺼이 歡迎할 것이며 그와 北南關係를 전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平壤방문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함.</li> </ul> <p>○ UN駐在 북한대사 박길연, 미신고 2개 핵시설 사찰不可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군대 시설은 협상에 관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li> </ul>	<p>○ 페리 美국방장관, 대북제재에 따른 駐韓미군 3단계 증강 계획 건의</p> <p>* 뉴욕 타임스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北제재의 강도에 따라 駐韓미군 전력을 증강시키는 3단계계획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건의</li> </ul>
6.18	<p>○ 金泳三 대통령, 金日成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수락</p> <p>* 카터 前 美대통령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이 카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조건없이 빠른 시일내에 金泳三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제의를 해온데 대해 즉각 수락</li> </ul>	<p>○ 카터, 판문점 記者會見</p> <p>* 中放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朝·美 사이의 직접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북조선의 흑연감속로체계는 경수로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면서 핵문제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음</li> <li>- 조선통일문제는 北南 조선인민들 자신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li> </ul>	<p>○ 카터 前 美대통령, 訪北결과 설명 記者會見 (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은 북한은 과거에도 핵개발의사가 없었으며 현재도 核보유의지가 없다고 밝혔음.</li> <li>- 현재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3단계회담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오해라고 하면서 制裁가 효과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음.</li> <li>- 美國이 조선을 반대하는 제재 문제를 더는 추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음.</li> <li>○ 외교부 대변인, 프랑스의 UN 對北제재 지지 관련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프랑스 당국자들의 무분별한 언동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음.</li> <li>- 우리는 그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그를 뒤바침해주는 측들도 응당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는 것을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음.</li> <li>- 프랑스 당국은 우리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심사숙고해야 함.</li> </ul> </li> <li>○ 金正日 노동당사업 시작 3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2.8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오진우,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남, 최 광계응태, 전병호, 한성룡</li> </ul> </li> <li>○ 金日成, 베트남 군사대표단 접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核연감속로를 경수로로 전환할 용의가 있으며, 전환에 대한 美國의 지원과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核공격을 받지 않을 것을 공식보장해 줄 것을 희망했음.</li> <li>- 金日成은 남북문제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核問題가 해결되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음.</li> <li>- 김일성은 金泳三 대통령이 전에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頂上會談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남한측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음.</li> <li>- 對北제재 결의안 추진 중단 발언은 美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얘기한 것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9		<p>0 金日成, 온천군 금강협동농장 현지지도</p>	<p>0 카터 前 美대통령, 金日成 남북한 감군 비율 따른 駐韓미군 감축案 제시 언급 * CNN방송 회견</p> <p>- 김일성은 남북한 군대를 상호 10만 명으로 감축하고, 駐韓미군도 동일한 비율로 감축하는 것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군하자는 등 몇 가지 제안을 하였음.</p> <p>- 북한 핵문제로 인한 위기는 이제 끝났으며, 따라서 對北제재를 위한 UN 결의안도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함.</p>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美·北회담 개최 용의 표명</p> <p>- 인출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IAEA 사찰요원들의 잔류를 허용하는 등 몇가지 조건에 동의하면 3단계 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9			0 中외교부, 남북정상 개최 환영 論評  - 中國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 어 긍정적 진전은 모두 歡迎함.  - 빠른 시일안에 3단 계 美·北韓 고위 급회담이 시작되길 희망함.
6.20	0 李榮德 국무총리, 남북정 상회담 예비접촉 제의 對 北電通文  - 귀측의 제의에 대하여 민 족의 염원으로 보나 오늘 날 우리가 처한 내외상황 으로 보나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귀측에 알리는 바임  -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절 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豫備接觸이 조속히 열리 기를 희망하면서 오는 6. 28 (火)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접촉을 가질 것 을 제의함.  - 예비접촉 대표단은 부총 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로 구성하고	0 러시아駐在 북한대사 손성필, 제재와 병행한 '國際會議' 개 최 반대 표명 * 러시아 국가회의 핵문제 관련 청문회  -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우리가 사찰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미국사이의 軍事·政治的 문 제임.  - 핵문제는 우리와 美國 사이의 회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  - 압력을 가하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 우리는 制裁가 어떤 규모에서 취해지는가에 따라 그에 상응 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	0 클린턴 美 대통령, 北核관련 '희망적 징후' 발견 언급 * 美NBC 회견  - 카터의 訪北을 통 해 북한 핵개발계 획을 둘러싼 충돌 을 면할 수 있다는 희망적 징후들이 발견됐음.  - 중요한 문제는 외 교가 진행되는 동 안 그들이 核계획 을 동결할 태세가 돼있느냐는 것임.  0 가키자와 日 외상, 對北 관계정상화 협 상 재개 용의 표명 * 參의원 외교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0	<p>수행원은 5명 내외로 할 것을 제의함.</p> <p>○ 國務總理 주재 고위전략회의 개최 *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책 논의</p> <p>○ 金泳三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 철저 지시 * 李洪九 부총리 회담 준비 상황 보고시</p> <p>- 解放이후 우리 역사가 바뀔지도 모름. 남북정상회담개최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p> <p>○ 金泳三 대통령, 남북상호사찰 중요성 강조 * 美상원 의원 접견</p> <p>- 남북한간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두頂上의 만남이 있어야 함.</p> <p>- 핵문제는 북한과 IAEA, 미국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남북한간의 공동 相互査察이 대단히 중요함.</p>	<p>- 우리는 제재를 가하면서 國際會議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음.</p>	<p>- 日本은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북한측의 협상재개 제의를 수락할 용의가 있음.</p> <p>- 회담재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모든 의혹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지 않을 것임.</p>

■ 6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0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頂上會談시 핵문제 논의 언급 * 국회 외무통일위</p> <p>- 북한이 반 개라도 核폭탄을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것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임</p> <p>- 核問題는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재처리시설의 보유가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論議될 것으로 봄.</p> <p>- 북한核의 과거 투명성문제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임.</p>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北韓에 핵계획 동결의사 확인 요청 書翰</p> <p>- 북한이 카터 前대 대통령에게 밝힌 내용을 확인토록 요청하는 書翰을 駐UN 북한대표부를 통해 전달</p>
6.21	<p>0 金泳三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개최 낙관 * 민자당 의원 만찬</p> <p>- 북한이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것임.</p> <p>- 金주석이 카터를 통해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일 것임.</p>	<p>0 金日成, 대성구역 협동농장 현지지도</p> <p>0 중국 군사대표단, 북한 방문 (6.21~6.29) * 단장: 王克 瀋陽군구 사령관</p>	<p>0 미키 前 日총리 미망인, 金日成 남북정상회담 8월 중순 개최 희망 언급 * 北京 기자회견</p> <p>- 金日成은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8월 중순 개최되기를 희망하였음.</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北핵동결의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1			<p>확인시 制裁노력 중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측의 핵개발 동결의지를 확인할 경우 對北韓 제재 노력을 중단하고 美·北韓 고위급회담을 재개할 것임.</li> </ul> <p>○ IAEA 사찰요원 2명, 北韓 체류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최근 IAEA 사찰요원 2명에 대한 체류허가를 2주간 연장</li> </ul> <p>○ 日 중외여행사, 北 일본인 관광객 入北 재허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여행사가 5월 중순 북한 관광을 희망하는 일본인을 받아들일것다는 연락을 해왔음.</li> </ul>
6.22	<p>○ 韓昇洲 외무부장관, 北核 과거 반드시 규명 강조 * 의신기자클럽 초청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核과거 문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li> </ul>	<p>○ 정무원 총리 강성산, 남북정상 회담 예비접촉 동의 對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위급회담을 통하여 北南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li> </ul>	<p>○ 클린턴 美 대통령, 美·北韓 3단계회담 재개 발표 * 특별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2 북한으로부터 美·北 3단계회담</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2	<p>美·北간 회담을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과 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정상적 외교 활동을 하는 정상적 국가로 인정받는데 반대할 이 유가 없음. 美·北 관계 진전에 원칙적으로 반대 하지 않음.</li> <li>- 북한의 진의가 남북교섭 과 美·北 3단계회담에서 확인되기까지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안을 계속 추 진해 나갈 것임.</li> </ul>	<p>주적으로 평화적으로 祖國統 一의 새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견지 해온 방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의 참여한 정세는 北南 쌍방에 다같이 최고위급회담 의 개최를 그어느 때보다 절 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li> <li>- 귀측이 우리와 최고위급회담 을 하려는 입장을 표시한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 서 北南최고위급회담을 위한 豫備接觸을 가지자는 귀측의 제의를 환영하며 그에 同意한 다는 것을 통지하는 바임.</li> <li>- 쌍방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는 7천만 우리 겨레에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쁨을 주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 일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역 적 사변으로 될 것임.</li> </ul>	<p>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핵개발계획을 동결할 것이라는 서한을 접수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다음달초 제네바에서 3단계 고위급회담을 추진 할 준비가 돼 있음 을 北韓에 통보함.</li> <li>- 북한은 3단계회담 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寧邊원자로 핵연료 장전 △사 용 핵연료봉 재처 리를 하지 않을 것 과 △ IAEA사찰팀 北韓 잔류 및 감시 장비 계속 유지를 확인했음.</li> <li>- 미국은 3단계회담 에서 北韓과 국제 사회에 영향을 미 치는 안보·정치· 경제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음 을 밝힘.</li> <li>- 미국은 이 대화기 간에 UN 안보리에 서 추진하고 있는 對북한 制裁노력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2		<p>0 金日成 『조국통일 5대방침』 발표 21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인민문화궁전)</p> <p>* 참석: 박성철, 양형섭, 장 철유미영, 강현수, 엄태준</p> <p>&lt;『祖平統』서기국장 백남준 기념보고 요지 &gt;</p> <p>- 오늘 北과 南, 海外의 모든 조선인민들 앞에는 '전민족대 단결 10대강령'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위업을 앞당겨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음.</p> <p>- 우리는 며칠전에 있는 미국 前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믿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의존 정책을 버리고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야 하며 동족간의 대결정책을 그만두고 민족의 화해와 단결의 길에 나서야 함.</p> <p>- 민족대단결과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서로 만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방도를 함께 모색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임.</p>	<p>유보할 것임.</p> <p>0 日방위백서, 북한을 최대위협국으로 간주</p> <p>* 日요미우리신문</p> <p>- 日 방위청은 『94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일본의 최대위협으로 간주하는 등 위협대상을 변화</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3	<p>0 李榮德 국무총리,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남측대표명단 통보 對北電通文</p> <p>- 수석대표: 李洪九(부총리) 대 표 : 鄭鍾旭(대통령 외교안보수석) " : 尹汝雋(국무총리 특별보좌관)</p>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 頂上會談 예비접촉 대책 방향 협의 및 대표단 구성문제 논의</p> <p>0 韓·美 정상, 北核 대책 전화협의</p> <p>-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美·北 3단계회담 재개를 비롯한 北韓核 대책을 논의하고 韓·美공조체제 재확인</p>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정상회담시 상호사찰문제 논의 시사 * 記者會見</p> <p>- 南北상호사찰문제 등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임.</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 3단계 회담 개최 관련 記者會見</p> <p>- 클린턴은 우리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 UN안보리에서의 우리에게 대한 제재논의를 정식 철회하고 제3단계 회담에 나서겠다는 것을 밝혔음</p> <p>- 제3단계 朝·美회담은 7월 첫 주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p> <p>-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제3단계 朝·美회담이 진행됨으로써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朝·美사이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p> <p>0 『祖平統』, 남한 핵무기 개발 주장 '備忘錄' 발표</p> <p>- 대덕단지에 있는 조사후 시험 시설은 재처리시설이며,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추출한 플루토늄양이 50kg에 달함</p> <p>- 남조선에서는 제3국으로부터 이산화물 형태로 플루토늄을 반입하고 있으며, 고속증식로의 개발은 플루토늄의 대량생산, 다량반입에 목적을 두고 있음.</p>	<p>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3단계 회담에서 北 과거 핵활동 논의 표명</p> <p>- 앞으로 며칠안에 뉴욕 실무접촉을 통해 3단계회담의 의제를 분명하게 정리할 것임.</p> <p>-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과거 핵활동에 관한 토론이 될 것임.</p> <p>0 파노프 러외무장관, 한반도문제 관련 국제회의案 수정 제의 * 정레브리핑</p> <p>- 기존의 8者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英·佛이 추가된 10者 國際會議 개최를 제의</p> <p>- UN 사무총장이 관련국에 초청장을 발송, 찬성할 경우 1주일 이내에 1차 國際會議가 제네바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언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미국에 NPT 조약 국으로서의 의무와 IAEA 와 맺은 核안전협정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은 北南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기 위한 책동을 계획적으로 자행해 왔으며 나중에는 현실적 무효화론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침내 그것을 휴지화해 버렸음.</li> <li>- 남조선 당국은 비법적으로 확보한 플루토늄을 공개하고 재처리시설인 조사후 시험시설을 폐기해야 함.</li> </ul> <p>○ 북한 국제문제연구소, 일본의 6.25전쟁 참가 공개 '備忘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미국과 함께 조선침략 전쟁을 준비하였음.</li> <li>- 일본은 조선전쟁시기 미군의 병참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였음.</li> <li>- 일본은 선박을 동원하여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등 조선전쟁에 직접적인 참가자임.</li> <li>- 일본은 세균전에도 직접 가담했음.</li> </ul>	<p>○ 해리슨 美카네기재단 연구원, 김일성 聯邦制 양보 의사 표명 언급</p> <p>* 嶺南일보 기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은 남한이 연방제案에 거부감을 보인다면서 대안으로 金大中的 '3단계 통일방안' 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li> </ul> <p>○ 美·러, 군사목적 플루토늄 생산금지 協定 체결</p> <p>* 고어 美부통령·체르노미르딘 러총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목적의 플루토늄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러시아측 원자료를 단계적으로 폐쇄기로 하는 協定 체결</li> </ul>
6. 24		<p>○ 金日成, 태국 국회대표단 접견</p>	<p>○ 美·北韓 실무접촉 (뉴욕)</p> <p>* 세이모어 美국무부 핵비확산국 부책임자, 한성렬 UN주재</p>

■ 6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4			<p>북한대표부 참사관 참석</p> <p>○ 크리스토퍼 美 국무 장관, 클린턴·김일 성 회담가능성 언급 * CNN방송 회견</p> <p>- 장래 어떤 시점에 서 그것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함.</p> <p>- 만약 北韓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정당화시킬 수 있 는 종류의 행위를 시작한다면 클린턴 대통령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 고 확신함.</p> <p>※ 마이애스 백악관 대변인, 정상회담 발언 관련 '美 행 정부의 정책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고 언급 (6.25)</p> <p>○ 러 이즈베스티야紙, 北 핵기폭장치 보유 보도 * KGB 비밀문서('90. 2.22) 인용</p> <p>- 북한이 90년에 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4			<p>기폭장치를 개발했으며 핵폭탄제조에 필요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음.</p>
6. 25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 반개라도 不容 거둬 강조 * 참전용사위로연</p> <p>- 북한 핵개발은 한개가 아니라 반개라도 절대 안된다는게 확고한 입장임.</p> <p>- 우리는 전쟁없는 평화를 원하며, 현시점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p>	<p>0 정무원 총리 강성산,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북측대표 명단 통보 對南電通文</p> <p>- 단장 : 김용순(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대표 : 안병수(『조평통』부위원장) " : 백남준(정무원 책임참사)</p> <p>0 외교부 대변인, 對北 특별사찰 주장 비난 記者會見</p> <p>- 일본과 남조선당국은 3단계 朝·美회담에서 우리의 핵의혹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는니 하면서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음.</p> <p>- 3단계 朝·美회담과 핵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핵무장화를 다그치고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해 보려는 속심이 깔려있음.</p> <p>- 우리의 핵의혹문제는 앞으로 朝·美회담이 성과적으로 진</p>	<p>0 유럽연합(EU) 12개 외무장관, 北核 조속해결 촉구 聲明</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5		<p>척되고 우리와 미국사이에 신뢰가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임.</p> <p>- 일부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되는 군사대상 사찰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도 이롭지 못할 뿐아니라 엄중한 후과를 산생 시키게 될 것임.</p> <p>0 北韓 올림픽위 전무 장웅,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全面不參 표명 * 日교도통신 회견</p> <p>0 金日成, 방글라데시 민족사회 당 接見</p>	
6.27	<p>0 以北출신 前의원 36명, 정상회담前 김일성의 6.25 남침 사과촉구 聲明</p> <p>- 金在淳, 金仁湜, 宋元英 등 以北출신 前의원 36명은 정부에 정상회담前 김일성에게 6.25 남침에 대한 시인·사과를 요구할 것을 촉구</p>	<p>0 外交部 대변인, 3단계 美·北 회담 개최 관련 '報道' 발표</p> <p>- 朝·美 쌍방은 제3단계 朝·美 회담을 '94. 7. 8 제네바에서 시작하기로 합의했음.</p> <p>- 회담에는 북측에서 강석주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이, 미국측에서는 갈루치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표단이 참가하게 됨.</p> <p>- 회담은 제네바 북한대표부와 미국대표부에서 엇바구어 진행하며, 첫날회의는 우리 대</p>	<p>0 마이어스 美백악관 대변인, 3단계 美·北 회담 개최 발표</p> <p>- 3단계 고위급회담이 7.8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임.</p> <p>- 회담은 생산적으로 진행되는한 계속될 것임.</p> <p>0 日아사히신문, 美, 북한과 2단계 수교 방안 검토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7		<p>표부에서 하기로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에서는 一括妥結방식으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朝·美 사이의 현안문제들이 토의될 것으로 예견됨.</li> </ul> <p>0 『韓民戰』평양대표부 대표 이 정상, '6월민중항쟁' 7돌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당국자들의 배신과 기만, 사기협잡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5, 6공 때의 군사파쇼를 능가하는 문민파쇼와 공안통치가 재현되고 있음.</li> <li>- 현 정권은 민족의 운명에는 아랑곳 없이 어떻게 해서나 대통령 권좌만 유지하면 된다는 말 그대로 대통령病 환자의 작태를 연출하고 있음.</li> </ul> <p>0 조선노동당·방글라데시 민족사회당 共同聲明 (평양) *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국제적 연대성 강화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北韓이 核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면 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인권, 미사일 수출문제까지 해결되면 국교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임.</li> </ul> <p>0 미에르 IAEA대변인, 사찰요원 2명 임무 교대차 向北 발표</p> <p>0 러 이타르 타스통신 北韓, 연구용 플루토늄 보유시인 보도 * 北 원자력위 대외 관계국장 최정순 발언 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寧邊 방사화학실험실에 '연구용 목적'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시인했으나 보유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li> </ul> <p>0 美하원 세출위, '95 駐韓美軍유지비 2억 5천만불 증액 합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8	<p>0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 판문점 『평화의 집』)</p> <p>※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合意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담을 '94.7.25 ~7.27 平壤에서 개최함.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음. 다음 회담은 쌍방 頂上의 뜻에 따라 정함.</li> <li>-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 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예비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대표접촉에서 토의, 합의함. 대표접촉은 '94.7.1 판문점 『統一閣』에서 가짐.</li> <li>-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남북정상회담 雰圍氣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함.</li> </ul> <p>* 남측 대표 : 李洪九, 鄭鍾旭, 尹汝雋 북측 " : 김용순, 안병수, 백남준</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후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장고조의 국면을 타개하고 대결보다는 協力の 時代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게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음.</li> <li>- 이를 위해 양측 頂上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임</li> <li>- 議題는 정상들이 자유롭게 논의한다는 방침임.</li> </ul>	<p>0 中放,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北南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의 모든 내용들에 견해의 일치를 보고 문안을 정리한데 기초하여 정식 합의서를 채택했음.</li> <li>- 우리측은 오늘 접촉에서 온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성의와 아량을 보였음.</li> </ul>	<p>0 파네타 美백악관 비서실장, 남북정상회담 합의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오는 7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계획에 크게 고무돼 있음</li> <li>- 클린턴 대통령이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상회담의 결론들에 전적으로 따를 것으로 생각함.</li> </ul> <p>0 하타 日총리, 정상회담 합의 긍정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지역의 상황을 위해서도 잘된 일임.</li> <li>- 국교정상화를 위한 日·北회담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음.</li> </ul> <p>0 로버트 오드 美태평양군 사령관, 亞太 합동軍 창설 제의</p> <p>* 22개국 軍참모총장 참석 국제군사훈련 회의 (호주 타운스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8		0 金日成, '한반도 위기상황 완화' 발언 * 王克 중국군 瀋陽군구 사령관 접견 (6.29字 신화통신)  - 한반도 상황은 완화됐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0 『職總』중앙위 대변인, 남한 철도·지하철 파업 관련 규탄 聲明	- 亞太국가들이 역내 공동의 군사개입규정을 마련, 단일 군사연합체로 작전을 수행토록 하자고 제의
6. 29	0 金泳三 대통령, 정상회담 超黨적 지원 당부 * 신임 국회의장단·상임위 원장단 초청 오찬  - 이번 南北정상회담은 조건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축성이 많은 대신에 정형화돼 있지 않음.  - 여러분들이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주면 큰 힘이 될 것임.  0 李榮德 국무총리, 頂上의 만남을 통한 화해·협력시대 개막 강조 * 제169회 임시국회 국정보고  - 두 정상의 만남이 南北화해·협력시대의 개막으로	0 중앙통신, 北 스킨드 미사일 對시리아 수출說 부인	0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韓 플루토늄 축소 신고 언급 * 리 이타르 타스 통신 회견  - 북한은 당초 신고한 것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음.  0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美·北회담시 核동결 최우선 언급 *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  - 美정부는 美·北 3단계 회담에서 북한의 기존 核프로그램을 중지시키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9	<p>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p>		<p>대 최우선 순위를 둘 것임.</p> <p>- 북한의 핵과거 규명과 현재 추진중인 대형원자로 및 제2핵연료 재처리 라인의 건설포기도 추구할 것임.</p>
6.30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판문점 대표접촉시 제시할 실무절차案 논의</p> <p>0 金鍾泌 민자당 대표, 북한 핵문제 완전 해결 강조 * 국회 본회의 연설</p> <p>- 분단 반세기만의 역사적 南北정상회담이 한반도내 확실한 평화와 공존의 시작이 되기를 바램.</p> <p>-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問題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임.</p> <p>- 북한 핵은 그 수량이 많고 적고간에 결코 허용할 수 없음.</p>	<p>0 노동신문,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관련 환영 論評</p> <p>- 합의서 채택은 90년대 통일의 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며 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민족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임.</p> <p>- 수십년간 실현되지 못했던 北南최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만족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임.</p> <p>- 역사적인 北南최고위급회담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적대와 대립, 분단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민족역사로 기록될 것임.</p> <p>0 金日成, 리도 마르텐스 벨기에 노동당 위원장 접견</p>	<p>0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 北韓 지연 계속될 제재 再추진 발언</p> <p>- 북한이 美·北 3단 회담을 지연을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북한 핵 문제를 UN안보리에 다시 회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적절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태세가 돼있음.</p> <p>0 고노 신임 日외무장관, 北核 대화해결 협조 표명</p> <p>-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관련 당사국과 협력해 나가겠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30			<p>0 워싱턴 타임스紙, 韓·美·日, 對北 경수로지원 컨소시엄 구성 검토 보도</p> <p>- 韓·美·日 3국은 美·北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한 10억弗 규모의 국제컨소시엄 구성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p> <p>0 美과학국제안전보장연구소, 北 2010년까지 플루토늄 1.7t 확보 전망</p> <p>- 北韓이 현재대로 핵개발을 진행할 경우 2010년까지 원자폭탄 26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될 것임.</p> <p>- 미국은 8천여개의 핵연료봉을 러시아나 중국 등 제3국에 넘겨주거나 콘크리트 밀폐용기에 넣어 영구히 매장할 것을 북한에 요청할 것임.</p>



# 南北對話 年表

(1994. 4. 1~6. 30)

發行日：1994年 7月 13日

發行處：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

